

Weekly

공감

2011.07.06 NO.116
gonggam.korea.kr



당신은 에너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P21~37

중점기획 물가 잡고 저소득층 보듬어 4.5% 성장 이룬다 P14~19

복지사각 그늘 덮고 우뚝 선 '한국판 풀포츠' 최성봉 P10~11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2010년 12월부터 시행 중

www.meatwatch.go.kr

800101000177

조회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수입에서 판매까지 수입쇠고기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투명하게!

- 국내에 유통 및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반드시 부착합니다.
- 식별표가 없는 수입쇠고기는 국내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유통정보 바로 확인!

-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접속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 원산지, 유통기한, 도축일자 등 수입이력정보를 확인합니다.

원산지 둔갑 판매 NO!

-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혹시 수입쇠고기 위해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회수도 가능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전력요금 현실화 고민해야 할 때



허은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녹색에너지의 대표인 신재생에너지는 기술개발과 기업경쟁력을 갖추면 국제적 패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런데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춘 원가보다 싼 우리의 전기요금 정책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과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

□ 지난 2008년, 우리는 저탄소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선언으로 국가에너지 계획수립에서 국제적으로 뒤처진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2009년, 국가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를 발표해 선진국 수준의 중장기국가기본계획을 가지게 됐다.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이루기로 한 목표인 '시나리오 3'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 2005년 배출량 대비 4퍼센트를 감축해야 하는 개도국 최대 감축수준이다.

그렇다면 저탄소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은 무엇일까. 우선 녹색성장 쪽은 명약관화하다. 바로 기술개발과 기업경쟁력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에너지의 대표 항목이 바로 신재생에너지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국산에너지이며, 기술에너지이고, 청정에너지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국민의 동의를 얻기에 수월한 국민친화성을 가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에너지' 개발은 에너지의 국제적 패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고부가가치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활용, 기술 수출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도 선진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저탄소와 녹색성장 모두에 필수 핵심사항으로는 적절한 에너지 요금수준을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요금정책이 에너지 합리화보다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에 맞춰져 있어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이 엄청나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는 원가에

버금가는 세금을 붙인 반면, 전기는 오히려 원가보다 싸게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전기를 더 쓰는 현상이 발생한다.

2010년 겨울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전력 피크는 올 여름 아마도 '전력배급'을 실시하지 않고는 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전기요금이 평균요금의 40퍼센트

수준이라 주택 난방용 전기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비닐하우스와 채소재배 등 산업용으로도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매우 중요하다. 펠릿보일러(목재 연료인 펠릿을 사용하는 보일러)와 같은 바이오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 그러나 전기에 맞 들인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전기와 천연가스 배관망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지역에 재생에너지가 잘 보급되는 것은 좋은 기술과 정부의 장려책도 있지만 전력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두 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전력요금의 현실화는 에너지 절약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보급에도 효과적인, 가장 기본적인 정책인 것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서도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기술개발과 에너지 가격 합리화에 정부 모든 부처가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G



21

기획 특 집

에너지 절약 쿨한 당신!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를 대는 것은 새삼스럽다. 1차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자원빈국이며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며 가정경제 측면에서의 실리 등이 그렇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에 이르지만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제 '에너지 소비 대국'이란 불명예를 벗어던질 때다. 에너지 절약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당면한 과제다.

- 01 Reader & Leader | 전력요금 현실화 고민해야 할 때
- 22 총론 | 똑똑한 에너지 소비로 '녹색여름'을
- 24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법 | 냉장실 60퍼센트만... 냉동실은 꽉 채워라
- 26 일터에서 에너지 절약법 | 에너지 절약 잘하는 기업이 경영도 '탄탄'
- 28 도로에서 - 에코드라이빙 | "기름값 절약엔 친환경운전이 최고예요"
- 30 에너지 절약 상품 | 대기전력 '제로' PC... 돈 절약 전기 절약
- 32 에너지 절약 R&D | '꿈의 주택기술' 국내 건설사에 이전
- 34 신재생에너지 활용사례 | 고유가시대 관리비 절감 "효자 나왔네"
- 36 해외사례 | "20년 내 총발전량 50% 신재생에너지로"



표지 이야기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절약이 에너지 생산만큼 중요한 걸 아시나요? 한두 정류장, 두세 층은 걷고, 실내온도는 몇도 올리며 경제운전을 하면 에너지 사용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게 됩니다.

일러스트·이철원



- 04 공감라운지 | UCC 영상을 공모합니다
- 06 포커스 | 원산지 지정 꼼꼼히 챙겨야 관세 혜택
- 08 핫이슈 | "강원의 운명 바꾸자!"
- 10 공감 이 사람 | 노래 하나로 국민 감동시킨 '코리아 갓' 탤런트 최성봉씨
"껌팔이 소년, 더 이상 울지 말아요"
- 12 이슈 | 여성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대한민국을

| 중점기획 |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 14 물가 안정 | 서민 생계비 경감... 물가 꼭 잡는다
- 16 일자리·내수 | 지역인재 채용 늘려 청년실업 줄인다
- 18 가계부채 | 가계대출은 최고 서민금융 부담은 줄여
- 38 한류 현장 | 한류의 신성장동력 흥대 앞을 가다
인디밴드, 마니아 음악을 넘어 해외로
- 40 나도 한류 | 인디밴드 갤럭시 익스프레스 "K록도 신한류 충분"
- 42 공감 이웃 | 신부님, 아젠 웃으세요
- 44 화제의 인물 | 신한류 스타로 떠오른 <최고의 사랑> 차승원
"나 독고진이야... 한류스타로 댔어"
- 46 이 사람 | 아이디어 입힌 공예품... 외국인들 '원더풀'
- 48 대학생 기자가 만난 사람 | "국내서 패선공부해도 뒤처지지 않아"
- 50 G20세대가 G20세대에게 | "섭외한 낮선 아티스트 대박 나면 뿌듯"
- 52 공감코리아 정책기자의 세상읽기 | "문화복지는 사회통합·신성장동력원"
- 54 공감여행 | 강원 동해시
무릉계곡 선경에 여름을 잇는다
- 58 건강생활 | 피곤한 눈과 목을 시원하게 풀어주자
- 59 디딤튼 | 글로벌 에티켓 44 바람이 분다
- 60 책 읽어주는 남자 | <모든 것의 가격> 나는 얼마? 너는 얼마?
- 61 공감카툰 | 희망은 언제나 반짝반짝!
- 62 문화 공감 | 돌아온 포크 '4인4색'
- 64 소통칼럼 | 당신도 혹시 거짓말 증후군?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7월 7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를 읽고 】

서로 돕는 지자체의 모습 기대

“기획특집 ‘지역끼리 돕고 살자… 수도권·지방 상생’ 기사를 읽고 그간 수도권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보이지 않는 위화감과 갈등이 심각해져 갔음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조성해 지역의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기금도 자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다른 지자체끼리 서로 도우며 같이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우수종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창조지역사업, 지역 발전의 희망 느껴

“기획특집 ‘창조지역사업’을 읽으며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각 지자체별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희망적이고 인상 깊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심이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이 되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면을 보여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지방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 창의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김순님 (광주시 서구 양동)

녹색소비 장려하는 ‘그린카드제’ 환영!

“매번 ‘알아두세요’를 통해 새로 바뀌는 다양한 제도를 알게 되어 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번에 소개된 그린카드제는 에너지 절약이 화두인 요즘 시기적절하게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소비를 하면 ‘그린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는 에너지 절약의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홍길려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가은이 엄마’ 힘내세요!

“가은이 엄마 정소향씨 인터뷰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정소향씨의 불행했던 지난날의 사연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가은이에게 행복한 가족을 선물하고 싶다’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따뜻한 가족의 정을 듬뿍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꾸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사회

도 정소향씨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하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자랑스럽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의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반 총장님의 조용한 리더십이 세계에서 인정받은 점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더불어 국제기구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인의 활약을 다룬 ‘가슴에 태극마크… 3백98명 활약’ 기사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능력과 리더십이 세계 속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순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참된 봉사 실천하는 대학생들 대견

“지난 호 ‘G20세대가 G20세대에게’를 통해 봉사활동을 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는 대학생들의 인터뷰 기사를 잘 보았습니다. 사실 대학 사회 내에서 봉사활동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데,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취업을 위한 통과의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를 잊지 않는 일부 대학생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유수영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올 여름 농어촌으로 휴가 떠나야겠어요!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어 휴일이면 야외로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올 여름휴가? 농어촌으로 생태체험 가자’ 기사는 농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저희 가족도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농어촌에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느끼고 다양한 체험도 해야겠습니다.”

김준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우리가 함께 만드는 공정사회
<http://fair.korea.kr>에서 만나보세요!

공감퍼즐

알립니다

UCC 영상을 공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도란도란 문화놀이터'는 2주년 축하기념 UCC 공모전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문화생활 종결자라면 누구나 공모 가능하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구성된 영상을 공모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자유 형식이며, 패러디 및 인용은 가능하나 표절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블로그에 들어가면 응모예시를 볼 수 있다.



공모 기간 | 7월 17일까지

제작 형태 | 각종 카메라로 촬영된 일반 영상물 및 플래시 동영상

응모 방법 | ① 기획한 영상을 제작한다.

② Daum TV팟 UCC이벤트 페이지 내에 완성된 동영상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도란도란 문화놀이터' <http://culturenori.tistory.com>

문화유산 영상을 공모합니다

문화재청은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문화유산 공모전을 실시한다. 세계적인 우리 문화유산,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 후손들에게 물려줄 문화유산 이야기나, 문화유산과 관련된 추억 등을 내용으로 구성하면 된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을 담아 많은 참여 바란다.

공모 기간 | 8월 1일~10월 2일

공모 대상 | 대학/일반부(만 19세 이상), 학생부(만 18세 이하)

공모 주제 |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는 구성을 담은 영상

공모 규격 | 720×480픽셀 이상, 5분 이내, 300MB 이하

응모 방법 | 헤리티지채널(www.heritagechannel.tv)에 작품 업로드와 댓글로 작품을 간단히 소개한 후 공모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

지원 혜택 | 시상 외 상금 수여

헤리티지채널 홈페이지 www.heritagechannel.tv ☎ 02-2061-6665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 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빠'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전화료 약 1백40원

문자 투표 | '제주' 'jeju' 'JEJU' 중 택1 하여 문자 작성 후 001-1588-7715로 전송.

자세한 내용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제주 공식블로그(blog.naver.com/7wondersjeju)' 참조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7w.com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7월 12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2. 얇게 저며 갖은 양념 하여 구운 쇠고기. 힌트 ○비○니.
4. 본래 값의 절반. "이 옷을 거의 ○○에 샀다."
5.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위해 대형 기획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는 그룹이나 밴드를 말하죠.
6. 이것이 오르면 특히 시민생활이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은? ①기온 ②모기 ③물가 ④수위
7. 일이 처음으로 시작됨. "항일 운동은 그 사건을 ○○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세로

1.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석유, 전기... - 절약.
3.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유의 체계. 문자나 숫자 등으로 이루어지죠.
4. 틀림없이. 꼭.
5. 사람이 사는 집. "○○가 드문 산골을 지나왔다."
8. 한국무역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EU FTA가 ○○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114호(6월 22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채움 2 다문화가정 5 미싱 7 성호 9 세시봉

세로 1 채송화 3 문전성시 4 정미 6 싱글맘 8 호봉

《Weekly 공감》 114호 '공감 퍼즐' 당첨자

서영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송평근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이순금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장경연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최세영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한·EU FTA 발효... 거대 블루오션이 떴다

원산지 지정 꼼꼼히 챙겨야 관세 혜택

지난 7월 1일 한국·EU FTA가 발효되자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한·EU FTA 발효로 철폐되거나 대폭 낮아질 관세장벽을 의식해 “한·EU FTA 체결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1993년 EU가 출범한 이래 한국에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 열린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는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EU로 수출되는 공산품 가운데 97.3퍼센트에 붙던 관세는 7월 1일자로 즉시 철폐된다. EU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공산품의 90.7퍼센트에서도 관세가 사라진다. 또 쌀과 쌀가공 제품 같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 한국은 7년에 걸쳐, EU는 5년에 걸쳐 나머지 제품들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과 EU가 단일시장으로 묶이는 셈이다.

인구 5억명의 EU는 세계 경제의 33퍼센트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다. GDP 19조 달러의 EU는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 교역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하지만 우리의 EU 시장점유율은 3퍼센트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 인도, 터키 등 후발주자들이 EU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했다. 한·EU FTA 발효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서 국내로 생산기지 옮기는 기업 늘듯

전문가들은 한·EU FTA 발효로 최근 수출 호조 품목인 LED조명, 베어링, CCTV, 언더셔츠(속옷) 등의 대 EU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큰 폭의 관세철폐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EU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제품, 전자부품, 타이어 역시 추가적인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영국 런던의 테스코 매장에서 열린 '한국식품전' 행사를 찾은 영국 시민들이 라면과 고추장, 김을 살펴보고 있다. 한·EU FTA 발효로 한국 상품을 찾는 유럽인들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분석된다.

예컨대 한·EU FTA 발효로 1천5백 시시를 넘는 중형차는 종전 10퍼센트이던 관세가 7월 1일부터 7퍼센트로 인하됐다. 이후 2012년 4퍼센트, 2013년 2퍼센트로 줄어든 뒤 2014년부터는 아예 관세가 폐지된다. 현행 수입관세는 EU가 한국보다 2퍼센트포인트 높은 10퍼센트 수준이어서,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는 한국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한·EU FTA는 발효일인 '7월 1일 0시'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FTA 발효 전 운송 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발효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원산지신고를 기재한 송품장(인보이스)을 소급 발급해 세관에 제출해야 특혜관세가 주어진다.

원산지 기준 충족도 관세인하를 누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도 한국이 아닌 중국서 선적할 경우 관세인하 혜택이 없다. '직접운송' 원칙에 따라 '중국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올 하반기 출시할 유럽형 중형차(배기량 2천 시시) 물량을 기존의 인도 공장이 아닌 울산에서 생산기로 한 상태다.

7월 1일 0시 이후 수입신고 돼야 적용

현대·기아차의 경우처럼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국내기업들이 한·EU FTA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생산물량을 다시 국내로 돌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완성차 업체의 경우 FTA 체결로 인한 수출관세 인하로 얻어지는 이익을 마케팅 비용으로 돌리는 등 EU 지역의 현지 판매 확대에 총력을 쏟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나마 현대·기아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FTA 활용책 수립에 적극적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전문성 부족, 기술노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을 염려해 원산지 확인과 입증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수출물품이 한국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 가공을 위한 부품도입부터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실제 한·EU FTA는 원산지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령 단일 품목이라 해도 원산지 제품과 비(非)원산지 제품이 섞여 수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때 원산지와 비원산지 품목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가령 'A품목의 원산지는 독일, B품목의 원산지는 중국, C품목의 원산지는 프랑스라

전국 지방 관세청 FTA 상담 연락처

세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지방관세청	02-510-1562	fta-seoul@customs.go.kr
인천공항관세청	032-722-4195	fta040@customs.go.kr
부산지방관세청	051-620-6631~8	fta030@customs.go.kr
인천지방관세청	032-452-3163	fta020@customs.go.kr
대구지방관세청	053-664-5250	fta120@customs.go.kr
광주지방관세청	062-975-8044	fta071@customs.go.kr
관세청 고객센터	국번없이 1577-8577	http://call.customs.go.kr

자료 관세청

는 식으로 적시하는 것이다.

이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한·EU FTA 발효에 따라 본청 및 전국 47개 지방청의 모든 행정여력을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알리기에 '올인'할 태세다. 관세청은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인 'FTA-패스'를 보급하는 것을 비롯, 지난 6월 28일과 29일에는 6개 지방관세청(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광주)에서 수출기업을 상대로 한 FTA 설명회도 가졌다.

관세청은 지방청별로 2시간씩 진행된 FTA 설명회를 통해 FTA 관세혜택에 필수적인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등 한·EU FTA를 1백퍼센트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해당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를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다.

관세청, 원산지 관리프로그램 'FTA 패스' 보급

가령 우리나라에서 EU로 수출시 국내 수출기업은 국내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이 필요하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로 EU측 수출기업은 EU 회원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건당 6천유로(약 9백20만원)를 초과해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관세청은 한·EU FTA 발효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FTA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즉각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국 각 지방관세청에는 FTA 상담요원을 별도 배치했다(표 참조). 관세청 이철재 서기관은 "중소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 FTA활용의 제반 절차를 컨설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 글·이동훈 기자



지난 2월 20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현지실사가 열리는 강릉 실내종합체육관 앞에서 주민들이 IOC평가단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점프대에서 '2018

“강원의 운명 바꾸자!”

강릉서 7월 6일 밤 10시30분부터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시민 한마당

스포츠만큼 많은 이의 순수한 열정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동계올림픽이란 겨울 스포츠의 제전을 강원도 평창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이 12년을 지나 오늘에까지 왔다. 3번째 도전이지만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2018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기원하며 7월 6일의 표결을 기다리는 강원도 현지 표정을 둘러보았다.

○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자!”

강원도민의 염원이자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2018동계올림픽 유치지 결정일이 드디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우리 시각으로 7월 6일 자정. 지구 반대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제12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삼수도전'에 나선 강원도 평창의 운명이 결정난다.

“성급한 기대는 금물”... 차분히 결전의 날 기다려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염원을 이뤄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대표단이 7월 1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남아공

더반으로 출국했다.

이른바 '더반대첩'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결전의 장소인 더반 현장에서 활동할 평창유치위 선발대는 지난 6월 26일 격전지를 향해 장도에 올랐다. 특히 피겨여왕 김연아가 지난 5월 열린 스위스 로잔 테크니컬 브리핑에서 호평을 받은데 이어 6월 27, 28일 토고 로메에서 열린 아프리카올림픽위원회연합(ANOCA) 총회에 참석, 평창 프레젠테이션에서 연사로 활약한 점은 강원도민들의 사기에 보탬이 되어 주었다.

강원도민들은 남아공 더반 현장에서 대한전사들이 부동표를 얻기 위해 마지막까지 구슬땀을 흘리는 동안 강원도에서 유치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국민대합창' 행사가 열렸다.



김연아가 지난 6월 27일 아프리카 토고에서 열리는 ANOCA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염원하는 마음을 남아공까지 전달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응원전을 펼쳤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나선 만큼 승리를 염원하는 강원도민들의 2018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및 유치 확정 시 펼치는 행사도 다양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될 경우 모든 빙상 종목 경기가 열리게 될 강릉에서는 개최지 발표일인 7월 6일 밤 10시30분부터 시민의 유치 염원을 모으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 성공기원 시민 한마당 행사’를 마련하고 축제분위기를 조성한다.

평창에선 명품 소머리국밥 2018그릇 무료 제공

시민 2천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현지 IOC 총회를 강릉시청 임영대종각 광장에 설치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지켜보며 평창유치위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강릉농악팀 공연, 시립교향악단 연주, 유치 기원 시낭송, 시립합창단 공연 등에 이어 만약 유치가 확정될 경우 불꽃놀이 등 각종 경축 이벤트를 펼친다.

춘천 강원도청 앞 광장에도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성공기원행사를 연다. 주 개최지인 평창에서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독특한 행사를 준비했다.

7월 6일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점프대에서 열리는 ‘D-day’ 행사장에서는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을 위해 소머리국밥 ‘2018그릇’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해 막바지 불 조성에 나선다. 행사가 늦은 밤에 열려 유치를 염원하는 참가자들의 건강을 위해 도내 명품 한우 브랜드인 대관령한우 소머리국밥을 동계올림픽 개최 연도에 맞춰 2천18그릇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일종의 퍼포먼스다.

조직 결성 10년을 바라보는 ‘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모임(동사모)’은 동계올림픽 불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24일 평창군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전국투어에 나섰다. 서울, 인천,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여수, 부산, 울산, 대구를 거쳐 7월 5일 강릉, 6일 원주를 통과해 마지막으로 평창 현지에서 지역 주민들과 중계방송을 함께 시청하며 유치를 기원한다.

“대한민국 평창” 이름 올려 퍼질 때까지 최선

동사모 투어단은 경유지 도시에서 이벤트 부스를 운영하며 공연, 동영상 방영, 퀴즈, 포토존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해 왔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야말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일만 남았다. **G** 글·김보경(강원일보 체육부 기자)



그의 맑은 노래는 그늘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딛고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었다. 최성봉씨가 tvN 방송 무대에서 '넬라 판타지아'를 열창하고 있다.

노래 하나로 국민을 감동시킨 '코리아 갓 탤런트' 최성봉씨 “껌팔이 소년, 더 이상 울지 말아요”

이보다 더 불우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천상의 목소리로 '넬라 판타지아'를 불러 벅찬 감동을 주었다. 누구보다 불우하게 자랐지만 누구보다 아름다운 그의 노래에 많은 이가 커다란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의 물결은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 누구도 몰랐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버스터미널을 집으로 삼아 자란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부모의 이혼으로 세 살 때 서울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던 아이가 심한 구타에 못 이겨 보육원을 도망 나온 게 다섯 살, 우연히 올라탄 버스가 도착한 곳이 대전시외버스터미널이었다. 그때부터 소년은 버스터미널을 집 삼아 터미널 주변 유흥가에서 껌팔이 소년으로 살아왔다. 엄마의 손길과 아빠의 보호가 절실했을 나이에 춥고 두려웠을 매일 밤을 건물 계단과 공중화장실에서 보낸 그 소년이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천상의 목소리로 '넬라 판타지아(나의 환상)'를 불렀다. “저는 스물두 살 최성봉이라고 합니다...” 하는 자기 소개와 함께

지난 6월 4일 밤 11시 방영된 케이블채널 tvN의 리얼리티프로그램 <코리아 갓 탤런트> 첫날 방송에서 '넬라 판타지아'를 부른 최성봉씨는 폭풍 같은 감동을 몰고 왔다. 다소 쑥스러운 표정으로 무대에 오른 그가 심사위원 앞에서 담담하게 털어놓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마치 '한국판 올리버 트위스트' 같았다. 그리고 불우함과 대비되는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부른 '넬라 판타지아'는 당장 방송 녹화 현장부터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심사위원인 음악감독 박칼린씨도, 여배우 송윤아씨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장진 감독도 눈을 껌벅였다. 객석에서는 탄성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넬라 판타지아’의 감동은 안방극장과 온라인에서도 뜨거웠다. 온라인을 통해 해외로 전달된 그의 영상은 ‘킴팔이 폴 포츠’ ‘제2의 수잔 보일’로 불리며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 ABC에서는 ‘제2의 수잔 보일’이란 애칭과 함께 최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후 CBS와 CNN 등의 TV뉴스와 <TIME> 등 미국 언론에서 앞다퉈 그의 사연을 다뤘다.

또 세계적인 아이돌스타 저스틴 비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갯텔> 동영상을 게재했다. 미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블로그 ‘페레즈윌튼닷컴’에도 그의 영상이 소개됐다.

미국 언론도 ‘제2의 수잔 보일’ 애칭으로 소개

그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모델’로도 언급됐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6월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임기말 참모진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최씨를 언급, “국민을 감동시키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의미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방송이 나간 뒤 한때 그가 대전예고를 졸업한 사실을 감췄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tvN이 편집 과정에서 그의 말을 잘라낸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사실 킴팔이 소년이 부모 지원을 받는 아이들도 가기 어려운 예고에 입학한 것 자체도 기적 같은 일이다.

킴팔이뿐 아니라 신문배달, 전단 돌리기 등 험한 일을 마다 않던 그를 포장마차 아주머니 한 분이 눈여겨보았고, 공부를 권했다. 처음으로 따뜻한 충고를 들은 그는 14세인 그때 비로소 터미널 주변 야간학교에 들어갔고 초·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16세가 된 그는 한 나이트클럽을 갔다가 인생의 방향을 성악으로 바꾸는 경험을 한다.

“어떤 분이 나이트클럽에 와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훌쩍 반해버렸어요.”

성악 배울 곳을 찾았다. 이때 조건 없이 그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이 성악가 박정소(37·루체음악학원장)씨다. 그는 박씨를 만나 열심히 연습했고, 2006년 대전예고 성악과에 입학했다.

예고 2학년 때 겨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됐던 그는 저녁에는 여전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했다. 고3을 앞둔 무렵부터 성악가가 되려는 그의 꿈은 흔들리게 된다. 부모 지원을 받아도



배우 송윤아씨도, 음악감독 박칼린씨도 그의 노래를 들은 다른 이들과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어려울 텐데, 생계나 공부나 갈림길에 섰던 그는 학업에 충실하기 힘들었고, 고교 졸업 후 일용직을 전전하게 됐다.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그는 2007년 12월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중 다쳐 입원 중이던 대전 건양대 병원에서 열린 자선음악회에서 노래를 불러 당시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예고 시절 한국어린이재단 후원을 받았던 그는 졸업으로 후원이 종료되는 즈음 재단 계사판을 빌려 자신의 후원자에게 “남들과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7월 9일 <코갯텔> 방송에 다시 출연한다. 이날 최씨를 포함한 예선통과자 40명의 본선 방송 날짜가 결정된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본선은 7월 16일부터 8주 동안 진행된다.

벼랑 끝 복지 사각지대에서 핀 아름다운 꽃

그가 부른 ‘넬라 판타지아’의 감동이 클수록 왜 이 청년이 소설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더욱 안타깝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눈을 돌리고자 하는 정책적 흐름도 그래서 더욱 절실함을 갖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서울 광진구 공중화장실에서 발견된 최씨와 비슷한 처지의 3남매의 예를 들며 “복지 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모든 국민이 같은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 이전에 이런 분들부터 먼저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맞춤형 복지에 힘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우리에게 ‘넬라 판타지아’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평범한 삶이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이 되길 바라는 최성봉씨를, 제2, 제3의 최성봉씨를 응원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나는 환상 속에서 모두 정직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봅니다… (넬라 판타지아의 가사)” **G** 클·박경아 기자



지난 7월 1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6회 여성주간기념행사에서 직장인밴드 '타임투어밴드'가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여성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대한민국을

7월 1~7일 여성주간... '국격에 맞는 여성인력 활용' 주제로 행사 잇따라

여성가족부는 제16회 여성주간을 맞아 '국격(國格)에 맞는 여성인력 활용'이란 주제로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난 7월 1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6회 여성주간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향식 국무총리와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 여성단체와 각계 전문가 5백여 명이 참석했다.

□ 여성주간은 1996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녀평등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한 주간이다. 정부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주일을 여성주간으로 기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여성주간 행사가 열린 지 16돌 맞는 행사로, '크게 키워요, 여성의 꿈, 함께 빛내요, 대한민국!'이란 슬로건 아래 열렸다.

기념식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양성평등실천을 결의하는 퍼포먼스와 축하공연으로 구성됐다. 특히 직장인 남녀로 구성된 '타임투어밴드'는 남성과 여성, 악기가 한데 조화를 이루는 열정적 무대를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이날 여성주간 기념식에서는 여성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도 이루어졌다. 8개 단체를 포함해 모두 22명이 각종 정부포상을 받았다. 직접 상을 수여한 김향식 국무총리는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서는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지만,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66.9퍼센트, 임시직 비율은 남성의 두 배"라며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향숙 소장 등 22명 정부포상 받아

김향숙(54) '꿈아리 부전현장상담센터' 소장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김향숙 소장은 지난 2004년 성매매 없는 건전사회 조성을 위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사회복지법인인 '꿈아리 부전현장상담센터'를 설립했다. 2004년은 마침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성매매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던 때였다.

이후 김 소장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의료 및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 자활지원에 헌신했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했다. 1980~1990년대 부산가정법률상담소와 부산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여성 지원, 저소득 여성 기술교육 같은 여성 권익신장활동을 해온 것은 그의 활동 밑거름이 됐다.

김향숙 소장은 “처음 여성운동에 뛰어들 1980년대만 해도 여성의 지위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도 부지기수였다”고 기억했다. 이에 김향숙 소장은 지금도 부전현장상담센터 활동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 명예감시단 명예감시원으로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다.

여성정책포럼에서 정부 우수사례 발표도

강은성(64)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장과 안명옥(5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은 국민훈장 목련장을 각각 수상했다. 강은성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장은 1993년부터 여성능력개발을 비롯 녹색생활문화운동, 아동·청소년 교육사업, 이주여성과 외국인 지원, 독거노인 및 장애우 돕기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와 사회복지사업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명옥 이사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위안부와 탈북여성의 인권보호와 건강을 위해 노력해 상을 받았다. 안 이사장은 서울 차병원 산부인과 과장과 여성평생건강관리센터 소장을 역임한 가족보건학 전문가다.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09년부터 여성인권진흥원 초대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김황식 국무총리(왼쪽)가 여성주간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7월 1일 오후에는 ‘선진사회를 위한 미래 여성정책의 전망’을 주제로 여성정책포럼도 개최됐다. 정책포럼에 모인 학계 전문가들은 오는 2020년 전후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환경을 진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각종 제언을 쏟아냈다.

특히 중앙대 사회학과 김경희 교수의 ‘일, 가족, 생활이 균형과 조화를 위한 미래의 여성가족정책’이란 주제발표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선진적 조세 및 재정정책과 여성의 후생’이란 주제 발표는 분과별 회의 초반부터 눈길을 끌었다.

정책포럼 자리에서는 정부 정책개선 우수사례도 대거 소개됐다.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도국 여성 국내초청연수행사, 농촌진흥청의 농촌여성 인력양성 프로그램, 국방부의 여군 체제에 적합한 군복 개발, 부산광역시의 여성(임산부)과 사회적 약자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의 여성 정책 개선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특히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은 국내초청연수행사에 여성쿼터(30퍼센트)를 부여하는 식으로 여성능력개발에 한몫을 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양성평등 수준은 낮은 반면, 연수생 추천권이 현지 정부에 있어 여성의 참여가 제약을 받는 것에 착안했다. 여성쿼터제 실시 후 여성연수생 참여가 획기적으로 늘었다고 한다.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

한편 제16회 여성주간을 맞아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민간단체들은 정책포럼과 토론회, 전시회, 문화행사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오는 7월 7일까지 개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7월 7일 여성프라자에서 ‘제8회 서울시 여성상’을 시상하고, 7월 중에는 직장 여성들이 밀집해 근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성희롱 없는 평등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부산에서는 7월 9일 어린이대공원에서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하는 ‘양성평등실천 시민걷기대회’를 연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2008년 이후 여성의 고위직 참여도 매년 증대되고 있다”며 “여성주년을 통해 여성이 스스로 꿈과 희망을 크게 키울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과 개인이 함께 노력할 때 대한민국이 더 큰 발전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

글·이동훈 기자 / 사진·이경민 기자



정부는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이른 추석으로 인한 과일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조기출하도 유도한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 당시 광주광역시 서 부동수산물도매시장 모습.

서민 생계비 경감... 물가 꼭 잡는다

농수산물 계약재배 확대·수입량 조절 통해 공급부족 선제적 대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최대 화두는 물가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을 만큼 물가는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도 물가안정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질 계획이다.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시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시장친화적 물가대응과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 세계는 현재 인플레이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유가, 기상악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등이 맞물리면서 에너지와 식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자주 들릴 정도로 물가상승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 됐다.

우리 경제도 물가상승을 피하지 못했다. 세계적인 물가상승 요인에도 구제역과 한파 등 국내 문제가 더해진 결과다. 이에 따라 당초 3퍼센트 수준으로 예상했던 물가상승률을 4퍼센트로 수정했다. 하지만 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측면의 압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다 정부가 강력한 물가안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 거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고용과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총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재정지출을 억제한다. 내년 예산도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낮게 책정하기로 했다. 시중유동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물가불안의 구조화를 차단하기로 했다.

시장친화적 물가대응

직거래장터 활성화·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농수산물은 수급안정에 무게를 둔다. 이를 위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한다. 고랭지 가을배추의 계약재배는 평년보다 20퍼센트 늘린다. 중개형 계약재배를 도입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직접 계약재배도 확

대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계약대금의 정산, 분쟁조정 등 양측의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추적으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과실은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고등어와 오징어 등 어획이 부진한 수산물은 수입량을 늘린다.

직거래장터도 활성화한다. 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의 통합 홈페이지를 오는 8월까지 구축하고 생산지 인근 도시에 직거래장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시장 경쟁을 확대한다. 독과점 산업의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 개설, 망입대사업자 활성화 등 석유·통신 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구조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유통구조도 개선한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정착시키고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가격이 저렴한 재활용품 시장을 활성화한다. 재활용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요금안정

경영합리화 강화로 인상 최소화·시기 분산

공공요금은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이나 누적적 자원화를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는 분산한다. 요금을 인상할 때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은 자치단체 간 협의의 통해 인상시기가 물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기업의 경영합리화는 강화된다. 비용절감을 확대해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원가절감 계획과 실적을 공개하고 원가절감 성과를 요금조정과 연계하기로 했다.

차등요금제가 도입된다. 도로, 전력 등 공공인프라를 사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다른 요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피크수요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로통행료는 시간대별, 주중·주말별로 차등화하고 겨울철 전력요금은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및 전·월세 시장 안정

수도권 분양권 전매 완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투기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투기과열지구 제외)으로 조정



정부는 약국 수가를 합리화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된다.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은 확대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고 뉴타운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늘려 노후주택 정비와 도시재생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도 확대한다. LH공사 등의 매입임대를 늘리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수요가 많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보육, 교육, 의료 부문 등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은 줄여나갈 계획이다. 보육 부문에서는 우수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간다. 오전 6시 30분~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확대해 나간다.

의료비 부담도 덜게 됐다. 환자가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비선택진료의사의 배치를 늘리고 약국 수가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당뇨와 골다공증 치료제, 최신 암수술 기법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중증질환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최고금리를 현행 44퍼센트에서 39퍼센트로 낮춘다. 또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제도 등 서민 세제지원제도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던 일몰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G**

글·변형주 기자

지역인재 채용 늘려 청년실업 줄인다

취약계층 일자리도 확충... 내수산업 기반 강화해 체질 강하게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정책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해,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과 내수산업 기반을 강화할 것”이란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실업률은 7.3퍼센트에 달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3월 9.5퍼센트까지 뛰어올랐다가, 지난 4월 8.7퍼센트, 5월 7.3퍼센트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7.3퍼센트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전년도(6.4퍼센트)에 비해 0.9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일자리 정책의 목표를 '청년실업 해소'에 둘 생각이다.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별 목표와 실천계획을 오는 8월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49개 기관(평균 13.6퍼센트)의 채용률을 오는 2013년까지 30퍼센트로 확대하는 연도별 계획을 마련기로 했다.

지역인재의 채용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전략인 셈이다.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2010년 취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대학졸업생은 모두 47만명. 이 중 서울과 인천, 수도권 을 제외한 지방대 졸업생은 전체의 60.4퍼센트에 달하는 28만4천명이다. 대졸자 취업률에서 지방대는 53.5퍼센트로, 수도권대(53.3퍼센트)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취업자 가운데 지방대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대 졸업생보다 저조하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은 55.8퍼센트가 대기업에 취업한 데 반해, 지방대생은 44.2퍼센트에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 취업에서는 지방대생이 63퍼센트로, 수도권 졸업생(37퍼센트)에 비해 월등히 높다.



IBK기업은행이 지난 6월 2일 광주 전남대에서 개최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지방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 채용문화 개선도 유도한다. ‘서류-필기-면접’으로 이어지는 학력 중심의 채용문화를 인턴에서 채용으로 이어지는 직무수행능력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또 후기 졸업식에 전경련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지방대생 대상 채용설명회’를 오는 8~9월 중 권역별로 개최기로 했다.

실제 SK그룹이 인턴기간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정직원을 채용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정직원 가운데 지방대생의 비중이 전년 대비 25퍼센트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IBK투자증권의 경우도 올해 자기소개서만으로 서류심사와 1차 면접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입사원 중 지방대생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다.

마이스티고·특성화고 조기취업 지원

이 밖에 정부는 마이스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채용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도 밝혔다. 대학에 꼭 진학하지 않아도 괜찮은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기업은행은 특성화고 출신을 창구전담직으로 채용하고, 한국전력과 동서발전은 마이스티고 졸업자를 전기배전원으로 채용해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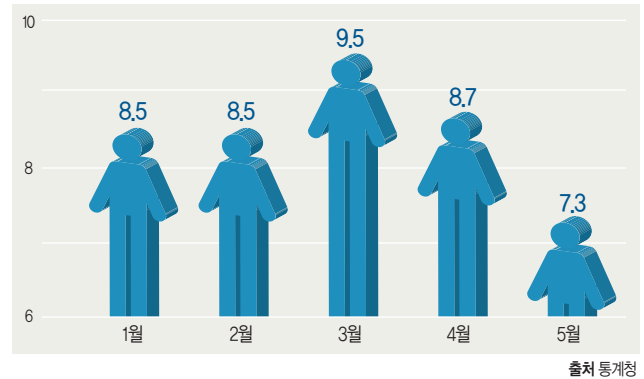
이에 정부는 고교생의 조기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직업교육을 받는 일반 고교생에 대해 수업료 지원도 검토한다. 또 특성화고와 전문대, 산업대가 연계된 5년 과정의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산업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비정규직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을 비롯 시간제근로자와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그 방안으로 정부는 “사내하도급의 적정한 운영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사업주의 의무와 노력사항을 담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오는 하반기 중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6~8월 중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운수업 등 현행 12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기로 했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쿼터서비스와 택배기사, 간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청소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도 병행한다. 한편 정부는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할 의지도 함께 표명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로 요약되는 일자리 대책과 함께 내수기반 강화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전통시장을 지역상권과 연계해 개발하고, 전통시장에서 물품구입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우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만 통용되던 은누리 상품권의

○ 월별 청년(15~29세) 실업률 변화 (단위: %)



사용범위를 나들가게와 골목수퍼로 확대하고, ‘1사(社)-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 5일 수업 등을 고려해 여가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 방안에는 공공부문의 근로시간을 현행 ‘9~18시’에서 ‘8~17시’로 1시간 앞당기는 것과 육아와 간병부담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내수 소비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장기적으로 ‘삶의 방식’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전통시장·국내여행 활성화로 내수기반 강화

‘동반성장’과 관련해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중소형 관급공사와 소프트웨어 사업, 소규모 공공조달과 같은 분야에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중소 IT업체의 참여비율 평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대기업 SI(시스템통합) 업체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 하나 관심이 모이는 것은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이다. 정부는 중·고교 수학여행과 대학교 MT의 지방 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테마별 관광명소 100곳을 선정해 홍보하고, 철도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자전거 패키지여행 상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장 체험형 학습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내 관광 상품권 활용을 촉진해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도 꾀할 생각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 한류(韓流)관광 콘텐츠를 적극 개발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해외관광에 대한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더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입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G**

글·이동훈 기자

가계대출은 최고 서민금융 부담은 줄여

대출 때 채무자 상환능력 확인...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소득공제 확대

올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8백조4천억원에 달한다.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경제에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이 문제를 잘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의 금융부담을 줄여 주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내놓았다.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 28일 서울 구로자율시장에서 시장경영진흥원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앞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면에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을 이용한 대출은 쉬워진다. 체크카드 이용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혜택도 확대된다. 이상은 정부가 6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다.

올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家計)부채는 8백조4천억원에

달한다. 1999~2000년 가계부채는 연평균 13퍼센트씩 증가해 왔다. 이는 경상GDP 증가율 7.3퍼센트를 웃도는 것이다. 2009년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GDP 대비 86퍼센트, 가처분(可處分)소득 대비 1백53퍼센트나 되어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한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건전성, 차주(借主)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가계부채 비교

	한국	미국	영국	일본	OECD 평균
가계부채/GDP(%)	85.9 (12위)	100.2	110.0	80.4	77.0
가계부채/가처분 소득(%)	152.7 (9위)	132.0	171.5	129.5	134.1

제2금융권 상호금융 대출한도 강화

하지만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低)신용층의 상환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 잠재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경제에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때문에 이번에 나온 종합대응방안은 가계부채가 앞으로 경제·금

용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미시적 대응을 강화 하되,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이 맞춰졌다.

첫째, 가계부채 증가를 적정선에서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가 계대출 관리가 강화된다. 은행의 고(高)위험 주택담보 대출이나 편 중대출 등에 대해서는 BIS 위험 가중치가 상향 적용된다. 현재는 위 험도와 무관하게 은행별 위험 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현재는 DTI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LTV)만 감안하고 소득 등 상환능력에 대해서는 확인을 소홀히 해 왔다. 앞 으로는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 채무상환 능력을 확인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에 대해서도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의 대출한 도가 강화된다. 사실상의 가계대출인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대신, 계좌에서 바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 이용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체크카드 사용자에게 대한 세제우대를 확대하기 위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가시 신 용카드 이용 실적 외에 현재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둘째, 서민의 금융부담 감소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 환 대출이 활성화된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95퍼센트, 일시상환 비중이 41퍼센트에 달한다. 이는 미국이 나 EU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신규대출부터는 고정금리·비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한다. 무주택자 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15년 이상 분할 상환할 경우에 소득공제한도가 현재의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 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 대신 그밖의 대출의 경우 소득공제한도는 5백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출상환 소득공제한도 1천5백만원으로 늘어

정부는 2016년까지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 중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퍼센트 수준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상품 및 혼합 대출 상품의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시 금리·금리변동주기·금리 변동 사유, 금리변동 상품의 위험성 고지, 금리변동폭에 따른 차주 부담 증가액 등을 차주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하게 하는 등 금융소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에 따라 햇살론 등 서민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비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앞으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재 3개월인 금리변동 주기를 미국이나 일본 수준인 6개월~1년으로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은 까다로워지지만, 햇살론·새희망홀씨 등을 통한 서민금융 대출은 확대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10퍼센트대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햇살론의 경 우,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을 탄력적용하고, 보증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대출은 확대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긴급재활자금의 지원규모는 작년의 7백억원에서 1천억~1천2백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회복기금에서 운용 중인 2백억원 규모의 취업지원펀드도 5백억 원까지 확대된다.

KAMCO의 전환대출(KAMCO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보 증지원을 통해 서민층의 고금리대출을 12퍼센트 내외의 은행대출 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지난 6월 10일부터 지원 대상자가 현재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에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인 자로 확대된 데 이어, 전환대출을 담당하는 은행도 6월 30일부 터 현재 6개 은행에서 전국 모든 은행으로 늘어났다.

궁박한 처지의 서민을 현혹하는 고금리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 고, 불법대출 중개, 다단계대출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7월 중으로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공동 실무T/F를 구 성해서 세부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 항은 금년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서는 금년 중으로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6**

글·배진영 기자

열려라 공정사회

우리가 꿈꾸는 공정사회, 우리가 만들어요~!



1 공정 발견! 열공 콘테스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포스팅 하기

경품



2 함께 해요, 우.공.사!

가장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친한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스크랩 하기

경품



3 열공! 오늘의 목표!

함께 만드는 공정사회
여러분의 목표를 남겨주세요!

댓글 달기

경품



- 이벤트 기간
2011. 6. 23(목) ~ 7. 13(수)
- 당첨자 발표
2011. 7. 18(월)

※ 이벤트 3은 즉석당첨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참여방법

<http://fair.korea.kr> 접속

지금 바로 검색창에 '공정사회' 를 쳐보세요!

평평 쓰는 그런? 에너지 No 아껴 쓰는 그린 에너지! Yes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를 대는 것은 새삼스럽다.

1차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자원빈국이며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며 가정경제 측면에서의 실리 등이 그렇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에 이르지만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제 '에너지소비 대국'이란 불명예를 벗어던질 때다. 에너지 절약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당연한 과제다.

- 22 똑똑한 에너지 절약
- 24 가정에서 - 엄마는 에코맘
- 26 일터에서 - 그린 오피스
- 28 도로에서 - 에코드라이브킹
- 30 에너지 절약 상품
- 32 에너지 절약 R&D
- 34 신재생에너지 활용사례
- 36 해외사례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워 냉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8일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에너지절약 국민실천 캠페인' 모습.

똑똑한 에너지 소비로 '녹색여름'을

2012년까지 에너지 효율 11.3퍼센트 높여 수입액 10조원 감축하기로

에너지 절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경우엔 더 그렇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다.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절약은 국민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지상과제다.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경제구조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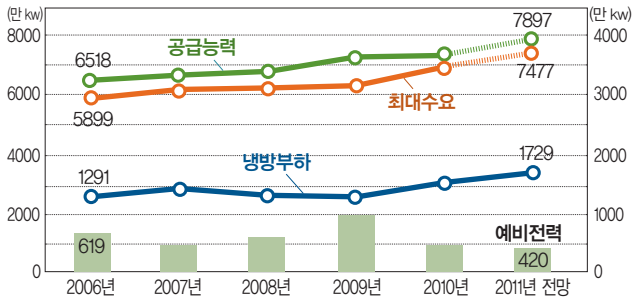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 중 하나다. 2008년의 경우 경제규모는 세계 12위였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 2.17티오이(toe)에서 2009년 4.99티오이로 20년도 안돼 2배 이상 늘어났다.

티오이는 가스, 석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석유로 환산한 수치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1티오이면 한 사람이 1년에 1톤의 원유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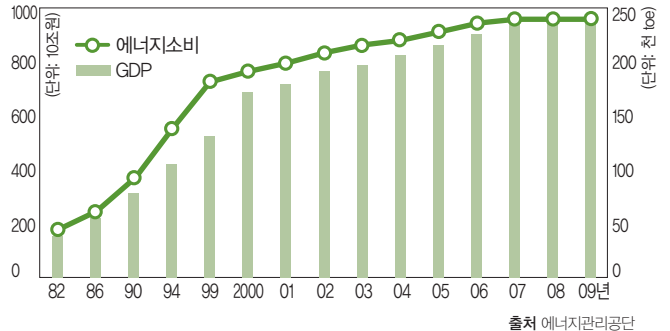
경제가 발전하면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소득이 늘어난다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대형가전의 보급률이 높아지는 것이 그렇다. 에어컨의 경우 2006년 가구당 0.48대에서 2009년 0.60대로, 엘빙가전은 2000년 가구당 0.05대이던 것이 2009년에는 0.39대로 크게 늘었다.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

연도별 전력 수급



GDP 및 에너지소비량 추이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다. 2009년 시장환율로 계산한 한국의 에너지원단위(에너지소비량/GDP)는 0.299로 0.096인 일본보다 3배, 0.157인 독일보다 2배나 많았고 OECD 평균(0.174)도 크게 상회했다. 2009년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5위에 머물렀다.

한국 에너지 효율성 OECD 25위에 불과

다행스러운 사실은 한국의 에너지 효율성이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0~2000년까지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1.0퍼센트 증가한 반면 2000~2009년에는 연평균 1.7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한층 향상시켜야 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당초 예상치보다 30퍼센트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85퍼센트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도 높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08~2012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07년 대비 11.3퍼센트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에너지효율향상 → 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수입감소 → 녹색성장·기후변화 대응·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성공하면 2012년에는 3천4백20만톤이오의 에너지를 절감해 약 10조원의 에너지 수입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은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만큼이나 경제적 효과가 크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는 등 생활 속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전기가 절약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11퍼센트가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아 발생하는 대기전력이라는 사실만 봐도 '작은 실천'의 효과를 짐작해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바람직한 전력사용 습관이 필요하다. 냉방을 위한 전력사용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확충된 발전시설은 이 기간 외에는 유휴시설이 되고 만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기요금이 불어나 부담이 되는 것은 불문가자다.

가정용 전력 11퍼센트가 대기전력으로 낭비

에너지관리공단은 올 여름 전력 사용량이 전년에 비해 7.0퍼센트 증가한 7천4백77만킬로와트(k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냉방용 전력 사용량 증가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용량의 23.1퍼센트에 달하는 냉방수요는 1천7백29만킬로와트로 12.3퍼센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올 여름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범국민 에너지 절약 생활실천운동인 '그린에너지패밀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실시해 참여의 폭도 넓혔다. '에너지 빼가-사랑더하기+ 캠페인'의 경우 여름철 절약하는 전기만큼 겨울철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에너지 절약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gogef.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문의·그린에너지패밀리 www.gogef.kr ☎031-2604-114

냉장실 60퍼센트만... 냉동실은 꼭 채워라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가계부 작성하면 매달 3퍼센트 절약

여름은 전기 소비량이 급증하는 시기다. 전기사용량 고지서를 받아들이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리 절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플러그를 뽑아 두고,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는 것만으로도 전력 소비를 낮출 수 있다.



냉장고에 필요없는 음식이나 물건들을 비우는 것도 에너지 절약의 한가지 방법이다.

평상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사용하기 에너지절약의 첫걸음은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구매·사용하는 것이다.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보다 약 30~40퍼센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대기전력 마크가 부착된 가전제품 사용하기 컴퓨터, TV 등 가전제품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에서도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이를 대기전력이라고 하는데 대기전력 소비량은 기기당 3.7와트(W) 정도다. 대기전력으로 인한 손실은 가정부문 전력사용량의 10퍼센트를 넘고 있다.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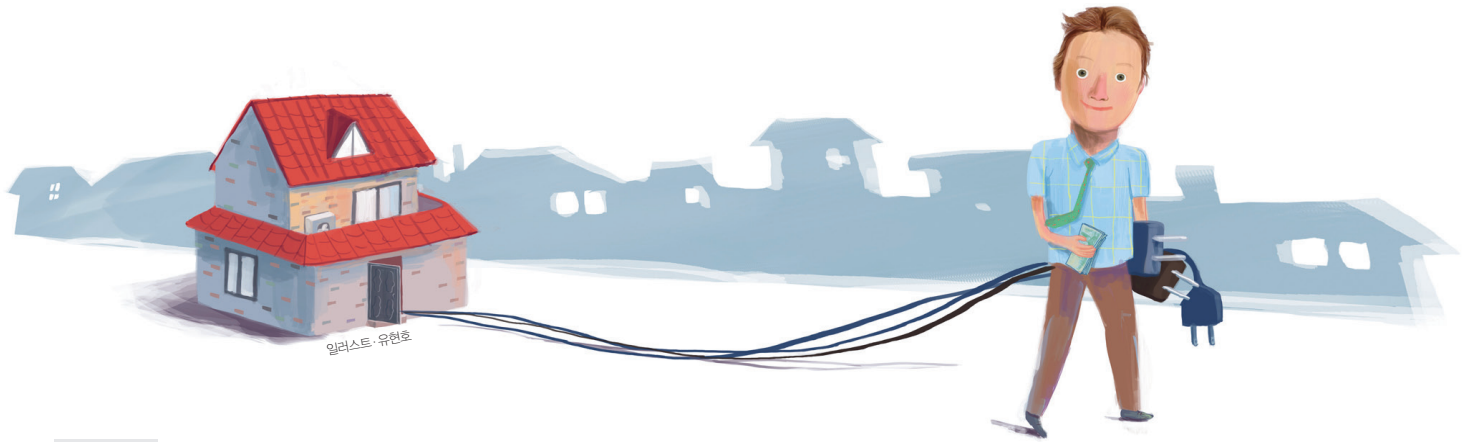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자동절전 제어장치는 부하 등을 감지하거나 타이머를 작동시켜 자동으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이다. 형태에 따라 멀티탭 형태의 자동절전 멀티탭과 콘센트 형태의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구분돼 손쉽게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다.

에너지가계부 작성하기 에너지가계부 쓰는 습관도 중요하다. 가정 내 사용되는 전기, 가스, 수도, 주유 등의 사용량에 대해 연간계획을 세우고, 매월 사용량을 확인하면 에너지 사용량의 3퍼센트를 절약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전기 사용량을 체크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방에서

다리미질은 모아서 하기 다리미는 처음에 켜서 가열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옷감들을 모아 한꺼번에 다리미질한다.

컴퓨터 1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 두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한 시간 꺼 놓을 경우 모니터와 본체 합쳐 1백40와트아워(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절전상태로 전환, 1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 두는 게 좋다. 프린터와 스피커 등 주변기기는 사용할 때만 전원을 켜 둔다.



거실에서

블라인드, 커튼으로 햇볕 차단하기 건물에서 가장 에너지손실이 큰 부분은 창호다. 에너지절감형 창호로 시공되지 않은 집일 경우 블라인드와 커튼을 달아 일사량을 차단하면 실내온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진공청소기는 한 단계 낮게 조정해 사용하기 진공청소기는 시간당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는 필요에 따라 강약을 조절해 사용하고 필터 및 먼지통을 자주 청소하면 전력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절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하기 여름철 전력사용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에어컨 사용이다.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3등급 제품보다 월간 27.9킬로와트어워(kWh)의 절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에어컨 1대는 선풍기 30대가 사용하는 전력을 소비한다. 여름철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오후 2~4시에는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에어컨 사용 시 적정온도는 섭씨 26~28도로 설정하고 일정 시간마다 잠깐씩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사용하면 연속 냉방효과는 물론, 전기 절약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에어컨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 중성세제로 가볍게 씻어 주고 마른걸레로 닦아 준다. 에어컨 필터 청소를 월 1~2회 할 경우 10.7킬로와트어워를 절약할 수 있다.

주방에서

전자레인지 사용하지 않을 땐 플러그 빼기 전자레인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중 에어컨 다음으로 전력소비량이 큰 제품이다.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 뽑는 건 '기본'이다. 플러그를 뽑으면 대기 전력을 차단해 낭비전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요리용'보다는 음식물을 데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다.

1등급 냉장고 사용에 보관 용량은 60퍼센트만 냉장실은 60퍼센트만, 냉동실은 되도록 가득 채우는 게 좋다. 냉장실 내 음식을 꽉 채우면 냉기가 원활히 순환하지 못해 전력 소비가 많아지며 음식물도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6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뜨거운 음식물은 반드시 식혀서 넣도록 한다. 반면 냉동실은 6초간 문을 열었을 때 급속히 올라간 기온을 다시 내리는 데 30분이 걸리므로 가급적이면 내용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도움 된다. 냉장고를 설치할 때도 뒷면 벽과 10센티미터 이상, 윗부분은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배치해야 전력효율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적정 온도는 냉동실의 경우 섭씨 영하 15~18도, 냉장실의 경우 섭씨 3~4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욕실에서

목욕 대신 샤워를 욕실에선 물을 가열하는 과정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일반 욕조 목욕 시 1백5리터가량의 물을 소비하게 되는데 샤워기를 사용하면 욕조 물의 약 3분의 1 정도로도 몸 씻기가 가능하다. 샤워시간을 1분만 줄여도 매년 1천9백리터에 가까운 물을 줄일 수 있다. 절수형 샤워헤드와 수도꼭지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다.

세탁물은 모아서 하고 찬물로 행구기 세탁기를 사용할 땐 오염 정도에 따라 옷감을 분류해 한 번에 모아서 세탁하도록 한다. 세탁물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설정해 사용하고 세탁이 끝난 후 헹굼은 찬물로 하는 것이 에너지절약에 도움된다. **G** 글·박근희 기자

에너지 절약에 도움되는 사이트들
에너지관리공단 www.kemco.or.kr / SESEL나라 www.sese.or.kr /
그린에너지패밀리 www.gogef.kr

에너지 절약 잘하는 기업이 경영도 '탄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 고효율 LED조명 교체로 경비 대폭 절감

일터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법이 적잖다.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는 등 초기투자가 필요한 것에서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는 등 간단한 실천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넥타이를 풀고 고효율 제품으로 조명을 교체하는 등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대한항공 직원들은 여름철에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 2008년 이후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노타이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체감온도가 2도나 내려가 에너지 절약 효과가 적잖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본점과 잠실점 등 2008년 이전에 지은 점포의 조명등을 LED제품으로 단계적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열발생률과 전기소모율이 이전에 사용하던 1백50와트 전구에 비해 훨씬 낮은 장점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에너지절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데다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다이어트' 방법은 의외로 가까이 있다.



3층 이하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자제하자

엘리베이터는 전력 소비가 큰 설비에 속한다. 전국 34만대에 이르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이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전력을 아낄 수 있다. 먼저 3층 이하에서만 이용을 자제해도 엘리베이터 운행횟수를 20퍼센트 가량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상당하다. 월간 1천5백킬로와트아우어를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3층 이하에서 운행하지 않으면 연간 3천6백킬로와트아우어의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 금액으로 치면 41만4천원의 전기요금을 아끼게 된다. 소나무 14.4그루를 심은 것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도 있다.

4층 이상의 경우에도 격층으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의 경우 한 대는 홀수층, 한 대는



여름철 복장 간소화로 냉방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넥타이를 풀면 체감온도가 2도 가량 내려간다. 사진은 하와이안셔츠 근무복을 입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직원들.

작수층으로 운행하면 5.8퍼센트의 전기를 아낄 수 있다. 서고 다시 출발할 때의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월간 1천 5백킬로와트아우어를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연간 6천6 백킬로와트아우어, 78만5천9백원을 절약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 축 효과는 소나무 26.7그루에 달한다.



조명 교체하고 자동소등 센서를 부착하자

계단이나 화장실,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조명은 자동센서형 제 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용하지 않을 때 조명이 꺼지기 때문에 전기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절전효과는 상당하다. 한 건물에 50개만 자동센서형으로 바꾸면 연간 56만4천5백원어치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소나무 23.1그루 만큼의 온실가스도 감축된다.

LED 조명을 이용하는 것도 에너지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 LED 조명은 일반 형광램프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38퍼센트 적고 수명도 6배나 길다는 장점이 있다.

실내주차장, 복도에서 사용되는 보안등이나 센서등, 유도등처럼 24시간 점등해야 하는 조명을 LED로 바꾸거나 일반 조명을 LED 램프로 바꾸면 소비전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조명기기의 반사각은 고조도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 반 반사각은 반사율이 75퍼센트지만 고조도 반사각은 90퍼센트에 이른다. 2백64평방미터(약 80평)의 사무실을 기준으로 연간 78만원 가량의 전기를 아낄 수 있다. 건물을 지을 때 고조도 반사각을 적 용하면 램프의 설치량을 30퍼센트나 줄일 수 있다.

올바른 조명 사용법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조명기기 와 반사각을 자주 닦아 주는 것이 좋다. 먼지가 쌓이면 밝기가 떨어 지기 때문이다. 조명기기의 관리상태에 따라 효율이 10퍼센트 정 도 차이가 난다.

낮시간에 창가의 조명은 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낮에는 자연 채광만으로도 충분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창 가 조명만 소등할 수 있도록 조명 스위치를 사무실 구획별로 설치 하고 조도에 따라 자동으로 소등이 되는 조도센서를 부착하는 것 이 좋다.



냉장고·에어컨 등은 고효율 제품을 이용하자

많은 일터에서 냉장고, 보일러, 에어컨 등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에너지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 냉장고의 경우 가정용 냉장고보다는 효율이 좋은 상업용 냉



3층 이하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운행횟수를 20퍼센트가량 줄일 수 있다.

장고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업용이라도 이왕이면 등급이 높 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1등급 상업용 냉장고는 3등급에 비 해 월간 17.1킬로와트나 전력소비량이 적다.

보일러도 고효율 제품을 쓰는 것이 좋다. 고효율 보일러는 공기 예열기나 온수발생장치를 부착해 폐열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열효 율을 일반 보일러보다 5퍼센트 정도 높인다.

흔히 시스템에어컨이라 불리는 멀티에어컨도 고효율 제품을 사 용하면 약 65퍼센트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멀티에어컨은 한 대의 실외기로 여러 대의 실내기를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 덕에 빠 르게 보급되면서 전력피크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고효율 멀티 에어컨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효율적인 전력 운용에 적잖은 도움 이 된다는 얘기다.

형광램프에도 고효율 제품이 있다. 32와트 고효율 형광램프는 40와트 저효율 형광램프에 비해 에너지는 적게 쓰면서 같은 밝기거 나 더 밝은 빛을 낸다. 램프 하나만 교체해도 대당 8와트가 절약된 다. 2백64평방미터 규모 사무실의 램프를 고효율 형광램프로 교체 하면 연간 1백13만원 정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쓰지 않는 전열·전구는 반드시 끄시다

점심시간이 문제다. 텅 빈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거나 컴퓨터가 돌 아가는 일이 다반사다. 쓰지 않는 컴퓨터와 모니터는 끄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동절전 멀티탭이나 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를 사 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절전기능을 적극 적으로 사용할 필요도 있다. 설정시간은 10분 이내로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좋다. **G**

글·변형주 기자

“기름값 절약엔 친환경운전이 최고예요”

박희국·신진옥씨 팀, 연비향상률 68퍼센트 기록해 ‘2011 친환경운전왕’

친환경운전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운전습관의 변화가 친환경운전의 출발임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다. 지난 6월 환경부가 개최한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에서 우승한 박희국·신진옥씨 팀이다. 생활 속의 작은 습관의 변화가 친환경운전을 만들고, 이러한 절약 습관들이 모이면 환경도 보호하고 기름값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환경부 주최 2011년 친환경운전왕에 오른 박희국(왼쪽)·신진옥씨와 이들이 몰고 대회에 참가한 차량.

“ 시내 주행할 때 급출발, 급가속을 안 하면 뒤에서 다른 차들이 뺄뻔거리려요. 빨리 출발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됐지만, 어느새 양보하며 느긋하게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6월 26일 환경부가 주최한 ‘2011년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 최종결선에서 ‘친환경운전왕’으로 등극한 신진옥(28·에버그린21)씨는 처음에는 친환경운전이 쉽지만은 않더라며 웃었다.

신씨와 2인 1조로 함께 우승한 박희국(34·안산시청)씨는 “친환경운전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변 상황에 맞춰 가며 운전하면서도 연비를 높일 수 있어요, 습관들이기 나름이죠.”

이번 최종결선에는 전국 8개 지역(수도권, 충청, 강원,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예선 1~3위 24개 팀과 전기차 4팀, 하이브리드차 2팀 등 총 30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열세번째로 출발한 박희국·신진옥 팀은 같은 대학원을 다닌 사이, 신씨의 제안으로 참가가 이뤄졌다.

급가속·급출발·급제동 안해도 교통흐름 방해 없어

신씨의 직장인 에버그린21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안산시가 만든 환경재단이다. 신씨는 “올해 초 환경부 요청으로 재단 홈페이지에 ‘친환경운전대회’ 공지를 올리다가 ‘직접 참가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파트너가 필요했다. 규정상 2인 1조로 참가해야 했기 때문. 신씨는 주변에서 자기만큼 친환경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다 박씨를 떠올렸다. 신씨는 ‘친구보다는 멀고 남남보다는 가까운’ 박씨와 같은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 서로의 운전습관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급가속·급출발·급제동 안 하고, 신호대기 때 기어는 중립으로 놓는 게 저랑 똑같았어요.”

이들은 출발지인 국립환경과학원(인천시 서구 경서동)에서 반환



점인 연수구청까지는 박씨가, 올 때는 신씨가 운전을 했다. 그러나 복병이 숨어 있었다. 이날 따라 태풍 메아리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바람에 거센 맞바람이 불었다.

신씨는 박씨가 운전하는 동안 잔소리를 좀 했다고 한다. “박씨 국씨는 태풍으로 바람이 강해 공기저항을 심하게 받을 테니 평소보다 조금 높은 속도로 가자고 했고, 저는 하던 대로 시간당 71~79 킬로미터를 유지하자고 했죠.”

박씨는 “대회 당일날 비가 와서 차가 생각만큼 잘 안 나갔다. 그래서 엔진음을 유심히 들어가며 RPM 숫자를 맞춰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총각시절 용돈 아끼는 운전습관 몸에 익어

박씨는 올해로 운전경력 10년째다. 대회참가 이전부터 소문난 친환경운전자다. 어떤 차량을 몰아도 주변 동료보다 항상 시간당 2~3 킬로미터씩 높은 연비가 나왔다고 한다. 비결을 묻자 박씨는 “총각 시절 넉넉지 않은 수입에 연애를 하다 보니 기름값을 아끼는 주행이 몸에 밸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번에 두 사람이 대회에 참가한 차량도 박씨의 2009년식 투싼이었다. 표준연비가 시간당 9.8킬로미터인 휘발유 차량이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디젤차에 맞먹는 시간당 16.5킬로미터의 성적을 거뒀다. 연비상승률도 남들보다 높은 68퍼센트로 기록됐는데도 박씨는 “평균 1백퍼센트 가량 나오는 연비가 태풍 때문인지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아쉬워했다.

신씨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은 2002년이지만, 본격적으로 운전한 것은 3년 정도다. 게다가 오토매틱 차량이다. 그러나 운전경력이 짧다고, 오토매틱 차량이라고 친환경운전을 못하는 건 아니다.

“오토매틱이라도 기어는 변속되잖아요. 다만 자동으로 이뤄지죠. 경제속도인 시간당 60~80킬로미터 구간을 지켜 운전하면 엔진의 RPM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친환경운전을 한다고 귀찮은 일을 벌이는 건 아니라고 했다. 신씨는 “공기압 자주 체크하고, 엔진오일 꼬박꼬박 갈아주는 정도”라며 “다른 분들은 정비센터에서 다 알아서 해 준다고들 하지만, 가급적 직접 챙기려고 노력한다”고 자신만의 친환경운전 요령을 말했다.

박씨는 “몇 가지 운전요령 외에 예비타이어, 안전장비, 간단한 수리도구 외에는 불필요한 물건 싣는 일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높은 연비를 낼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기름값을 아껴서 고유가 시대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G** 글과 사진·남창희 객원기자

환경부가 추천하는 에코드라이빙 요령

환경부가 지난 3월 발간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친환경 운전 10가지 약속> 책자에 담긴 에코드라이빙 요령이다.

1 경제속도 준수하기

시간당 60~80킬로미터의 경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상황에 맞춰 정속주행을 하면 연비가 올라가고 배출가스는 줄어든다.

2 '3급' 안 하기

급출발·급가속·급감속 안 하기다. 출발할 때 3초 정도 시간당 시속 20킬로미터까지 서서히 가속한다. 급감속, 급가속을 밥먹듯 하면 연료소비비가 30퍼센트, 오염물질 배출은 50퍼센트까지 늘어난다.

3 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제 그만!

신호대기 중이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정차할 때 시동을 끈다. 공회전을 5분 하면 1킬로미터 달릴 수 있는 연료가 낭비된다.

4 신호대기 중 기어는 중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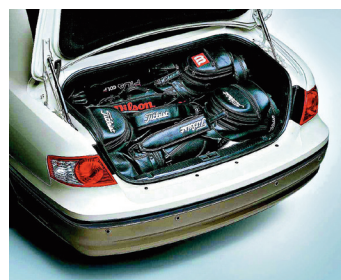
오토매틱 차량 운전자라면 신호대기할 때 기어를 중립(N)으로 놓는다. 구동(D)으로 놓고 정차할 때보다 최대 30퍼센트의 연료가 절약된다.

5 주행 중 에어컨 사용 줄이기

오르막길이나 교통체증이 심할 때는 에어컨을 끄는 게 차에 주는 부담과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

6 자동차를 가볍게, 트렁크 비우기

자동차에는 필요한 짐만 싣는다. 10킬로그램의 짐을 싣고 50킬로미터를 주행하면 8백시시의 연료가 더 소모된다.



7 유사연료, 인증받지 않은 연료는 NO!

유사연료나 인증받지 않은 첨가제는 차량을 빨리 노후시킨다. 추가적인 오염물질을 배출하기도 한다.

8 정보운전의 생활화

출발 전 기상정보와 목적지까지 주행경로를 확인해 상습정체 구간을 피한다. 월요일 오전이나 금요일 오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

9 내리막길에서는 관성운전

내리막길 주행 시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관성운전 하면 자동차의 연료 차단 기능(Fuel cut)이 작동해 연비가 20퍼센트 정도 오른다.

10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 정비하는 센스!

한 달에 한 번은 에어클리너를 점검한다. 에어클리너가 오염되면 연간 90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더 배출된다. 엔진오일 교환주기도 준수한다.

대기전력 '제로' PC ... 돈 절약 전기 절약

물 사용은 절반으로 줄이고 수압은 높인 샤워기도 인기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형의 친환경 제품이 인기가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똑똑한 절전 기능을 갖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 체온을 낮추는 '쿨비즈룩' 제품도 직장인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 최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아이디어 제품이 다양하다. 컴퓨터를 만드는 중소기업 모뉴엘의 '소나무PC'는 대기전력을 0와트로 낮춘 친환경 제품이다.

컴퓨터 내 대기전력제어시스템을 내장해 모니터와 스피커, 공유기, 프린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까지 대기전력을 차단한다. 일반 PC에 비해 전기사용량이 20퍼센트나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능성 멀티탭도 많이 나오고 있다. 답솔의 '에버그린멀티탭'은 자동 센서 방식으로 대기전력을 스스로 차단한다. 이 밖에 인터넷 쇼펍몰에서 '24시간 타이머', '3구 타이머 멀티탭' 등 1만원 내외의 전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이색제품들도 인기가 있다.

절수샤워기도 있다. 한국수도관리는 기존 샤워기에 비해 물 사용량을 최대 50퍼센트까지 줄이면서도 수압은 더욱 높인 '에어제트(Airjet) 절수샤워기'를 출시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 친환경인증마크를 받은 에어제트 절수샤워기는 미국 연방환경보호국(EPA)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워터센스(Watersense)' 인증을 획득해 미 정부에 공식 납품될 예정이다.

조명 밝기 2배로 높이는 반사갓도

한국수도관리 한대석 총괄이사는 "기존의 절수샤워기와는 달리 에어제트는 공기를 흡입해 강력한 수압을 만들어주는 공기압력 방식



- 1 LG전자 드럼세탁기 '트롬 6모션 20'
- 2 한국수도관리 절수샤워기 '에어제트'
- 3 쿠쿠홈시스 10인용 IH 전기압력밥솥 '블랙펠'
- 4 우림 삼파장 형광등 노출형 반사갓 '돈잡는반디'
- 5 모뉴엘 친환경 컴퓨터 '소나무PC'



을 적용했기 때문에 물의 양 대비 높은 수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명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는 보조 상품도 나왔다. 우림이 출시한 조명 반사갓 ‘돈잡는반디’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는 기능성 제품이다. ‘일반 형광등용 반사갓’, ‘삼파장 형광등용 ECO-반사갓’, ‘매입등(다운라이트)용 반사갓’ 등 종류가 다양하다.

우림 에너지사업부 이석훈 과장은 “기존 철판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조명 반사갓은 6개월이 지나면 황변현상으로 인해 조도가 저하되기 시작한다”며 “플라스틱으로 만든 ‘돈잡는반디’는 빛 확산이 잘돼 조명의 밝기를 최대 100퍼센트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효율 조명 반사갓인 ‘돈잡는반디’로 기존 반사갓에 비해 최대 50퍼센트까지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내 에너지 사용을 줄여주는 친환경 기기도 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한국후지제록스는 고성능 친환경 디지털 컬러 복합기 아페오스포트-IV C7780/C6680/C5580과 도큐센터-IV C7780/C6680/C5580 6종을 출시했다.

스마트 절전 기술을 탑재해 전력 소비를 기존 자사 모델 대비 최대 70퍼센트까지 절감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 절전 기술은 절전 모드에서 대기모드로 복귀할 때 복합기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 출력, 팩스, 스캔 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이다. 작업이 필요한 부분만 작동되므로, 복합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한 절반 이상 줄었다.

한 달 전기료 5천원 냉장고·쿨비즈 룩도 나와

가전제품의 변신도 눈부시다. 대기업들은 스마트한 기능에 에너지 절전 기능이 추가된 가전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소비전력을 최소화한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를 출시했다. 850리터의 대용량하면서도 월간 소비전력은 31.7킬로와트시까지 낮춘 에너지 고효율 제품이다. 월간 전기료가 약 5천원에 불과하다.

LG전자 HA마케팅팀 김정태 팀장은 “기존 동급 제품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최대 24킬로그램을 줄였다”며 “이는 매년 소나무 9그루를 새로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전했다.

쿠쿠홈시스의 신제품 ‘블랙펠’은 ‘점단 스마트 알고리즘’을 통해 최고의 밥맛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전기 압력 밥솥이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인 이 제품은 국내 최저 대기전력인 0.9와트를 유지한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정 온도를 유지하며 전원을 차단해 소비전력을 줄이는 ‘슬립 보온기능’도 갖추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을 아껴주는 똑똑한 세탁기도 인가다. LG전자가



최근 가전제품의 변신이 눈부시다. 스마트한 기능에 에너지 절전 기능이 추가돼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새롭게 선을 보인 드럼세탁기 ‘트롬 6모션 2.0’은 고온의 스팀으로 매를 불리는 방식으로 세탁 성능을 높여 물 사용량을 최대 44퍼센트까지 절약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버블에코’ 세탁기도 거품을 이용해 많은 양의 물이 필요 없다.

한편, 여름철 회사 내 가장 큰 에너지 소비 주범은 역시 에어컨이다. 요즘 회사 차원에서 사원들에게 정장이 아닌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을 지정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복 업체들이 소재를 달리해 기능성을 더한 ‘쿨비즈(Cool-Biz)’룩 제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제일모직의 신사복 로가디스는 특수 소재를 사용한 쿨비즈룩 제품을 선보였다. 아웃도어 의류에 널리 쓰이는 ‘쿨맥스’를 사용한 재킷으로 눈길을 끈다. 시원하고 청량감을 더한 쿨맥스는 땀을 흡수·배출하는 기능성 옷감이다.

이와 함께 체온을 2도가량 낮춰주는 특수 가공법 ‘아이스시’로 만든 양복도 내놓았다. 아이시시는 태양열이 유발하는 열선을 차단하는 특수물질을 원단에 주입하는 공법이라고 한다.

반면 남성복 브랜드 캠티지멤버스는 천연 소재의 쿨비즈룩 재킷을 내세운다. 캠티지멤버스 관계자는 “울과 리넨 등 천연소재로 만든 재킷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고 통기성이 우수해 많은 고객이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캐주얼라인의 클럽캠티지는 종이 섬유로 만든 페이퍼재킷을 출시했다. 면, 리넨, 마닐라 삼 등을 원료로 쓴 페이퍼재킷은 삼 자체가 가진 통기성과 흡습성으로 여름철 더위를 막아준다. **G**

글·이재남 기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2005년 대전 연구원 구내단지에 조성한 제로에너지타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 절약 기술 1백여 가지 ‘뚝딱’ ‘꿈의 주택기술’ 국내 건설사에 이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1998년부터 초에너지절약형 실험용 건물을 지어 에너지자립주택 연구를 해 왔다. 2002년에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1(ZeSH; Zero Energy Solar House1)’을, 2005년에는 ZeSH2를 개발했다. ZeSH2에는 독일의 패시브하우스를 능가하는 ‘신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다.

□ 대전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이름 그대로 에너지와 관련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요즘 각광받는 ▲태양광·풍력·바이오연료전지·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 등 온실가스 처리 ▲청정석탄·비재래형 연료 등 화석에너지의 청정 이용 ▲에너지소재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다.

이런 ‘각광 받는’ 분야에 가려 덜 주목받고 있지만, 이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또 하나 중요한 연구개발 과제가 있다. 산업·건물·수송·전기 등 관련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대전에 있는 연구원 구내에는 실험용 건물이 하나 있다. 1998년

지어진 ‘초에너지절약형 실험용 건물’이다.

이 실험용 건물의 1평방미터 공간당 연간 에너지소비량은 74메가칼로리(MCal)로서 지금까지 가장 우수하다고 자랑하는 일본의 오바야시구미(大林組)기술연구소 본관빌딩의 94메가칼로리보다 훨씬 뛰어나다.

1998년 초에너지 절약형 실험용 건물 지어

특히 국내의 보통 사무용빌딩이 1평방미터당 3백~3백50메가칼로리를 쓰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20퍼센트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 건물에 적용된 에너지절약 요소기술은 건축·설비·전기부문

에 걸쳐 74가지에 달한다.

건축과 관련해서는 이중외피(double skin)기술과 광선반기술 등 23가지 기술이 적용됐다. 이중외피기술은 건물 남측 외피에 2중으로 유리벽 커튼월을 설치하여 여름철에는 통풍을 시켜 냉방부하를 줄여 주고 겨울철에는 외기에열 및 난방부하 감소효과를 내는 기술이다. 광선반기술은 건물 남측 개구부(開口部)에 빛을 반사하는 장치를 설치해 빛을 사무실 천장으로 반사시킴으로써 눈부심을 막고 낮시간 동안 조명에너지를 절약해 주는 기술이다.

기계설비와 관련해서는 대체에너지 활용과 쿨 튜브 시스템(Cool tube system) 등 35가지 기술이 들어갔다. 대체에너지 활용 기술에는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전력 자체생산, 태양열집열판에서 얻어지는 고온수를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쿨 튜브 시스템은 지중(地中)에 스테인리스관을 3미터 깊이로 묻고 그 관을 통해 바깥 공기를 건물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예열·예냉 효과를 낸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 능가

전기설비와 관련해서는 조명자동제어시스템(실내에 사람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과 Task ambient lighting(조명이 필요한 부분만 국소조명하는 방식) 등 16가지 기술이 적용됐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절약형 건물을 바탕으로 2000년부터 본격적인 에너지자립형 주택 연구에 들어갔다. 2002년에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슬라하우스1(ZeSH; Zero Energe Solar House1)을 만들었다. 2005년에는 ‘제로에너지타운’을 운영하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ZeSH2를 개발했다.

ZeSH에 적용된 기술은 에너지 부하를 줄이기 위한 슈퍼단열기술과 자연형 태양열 기술, 배열회수 기술 등 패시브(Passive)기술과 태양열·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개념의 액티브(Active)기술로 대별된다.

ZeSH는 세계 최초로 ‘신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 시스템은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냉·난방과 급탕, 전기생산에 활용하는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을 적용한 덕분에 ZeSH는 설비별로 각각의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단점을 극복하고 건물의 콤팩트화 내지 일체화에 성공했다. ‘신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냉·난방 부하만 줄이는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 기술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벽면 일체형 태양열 집열 장치도 ZeSH의 자랑이다. 이 장치는 겨울철에는 집열이 많이 되고, 여름철에는 집열이 적게 되도록 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2005년 개발한 ZeSH2 전경.

장치다. 주택 남측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멋을 살리는 외장재 역할도 한다. 기존의 태양열 집열기가 흔히 지붕에 설치되어 여름에는 과열되는 단점을 극복했고, 설치공간을 절약해 주는 효과도 있다.

이 밖에도 건물의 외피를 통해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슈퍼단열 기술 및 고효율 창호’, 태양에너지를 통해 건물의 난방 부하를 줄이는 ‘자연형 태양열 기술’, 겨울철 실내의 따뜻한 공기와 외부의 찬 공기를 열교환시켜 예열된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는(여름철에는 반대로 작용) ‘환기배열 회수기술’, 버려지는 온수로 차가운 물을 예열시켜 공급하는 ‘온폐수 회수기술’ 등이 ZeSH에 적용됐다.

전북 고창에 ‘에너지 자립형 농어촌 뉴타운’ 추진

여기까지만 보면 탄소제로주택, 에너지자립주택 등으로 불리는 유사한 성격의 주택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유사한 성격의 주택들과 ZeSH의 차이점은 경제성에 있다. ZeSH는 기존 주택(50평, 평당 4백만원 기준) 대비 20퍼센트 정도의 추가비용을 들이는 것만으로 85퍼센트 이상의 에너지자립도를 달성할 수 있다. 비록 에너지자립도가 1백퍼센트에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적인 경제성’을 확보한 것이다. 연구원은 작년 3월 (주)한화건설과 협약을 체결해 ZeSH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백남춘 박사는 “태양광·태양열·지열의 신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건물에너지 저장 기술과 전력 IT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자립률 90퍼센트 이상을 목표로 하는 1백가구 규모의 에너지자립형 커뮤니티 구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전북 고창군과 협약을 맺고 ‘에너지자립형 농어촌 뉴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G** 글·배진영 기자



서울 시내에서 처음으로 기존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한 서울 강동구 성내동 현대 제이드 아파트. 옥상 위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이 보인다.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해 전기를 만드는 하이브리드 보안등.

고유가시대 관리비 절감 “효자 나왔네”

태양광·태양열·풍열·지열 이용한 ‘그린홈’ 공동주택 속속 등장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로 불을 켜는 거실, 태양열로 데운 온수가 나오는 욕실, 바람이 일으킨 전기로 불 밝힌 정원, 지열을 모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정원,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다. 지금 우리 생활 곳곳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줄이고 아끼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현대 제이드 아파트는 서울 시내에서 처음으로 기존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한 ‘1호 아파트’다. 4백29평방미터 면적의 옥상에 3백50평방미터 넓이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세대당 월평균 2백60.2킬로와트 규모의 전기를 얻고 있다.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나날이 늘어나는 아파트 관리비를 어떻게 낮출까 고민하던 제이드 아파트 입주자대표 박현장 회장과의 이병곤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 2009년 전기료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관리비 절감이란 데 뜻을 같이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데 주민 동의를 얻었다.

총공사비 3억5천만원을 들여 두 달간의 공사 끝에 지난 2009년 5월 제이드 아파트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완공됐다. 전체 예산 중 60퍼센트는 정부의 ‘그린홈 1백만호 보급 사업’ 지원금, 20퍼센트는 서울시 보조금이었으며, 나머지 20퍼센트는 주민들이 냈다. 가구당

약 3백70만원을 부담한 이곳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설비 가동 2년 만에 ‘본전’을 찾았다. 전체 아파트(19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3백만 원의 전기료가 절감됐기 때문이다.

옥상 태양광 시설비 80퍼센트 정부·지자체 지원

이병곤 관리소장은 “우리 아파트의 경우 남서향이어서 충분히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데다 가구 수 대비 넓은 옥상 면적,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일치 등 여러 여건이 맞아 주변 아파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며 “기존 아파트에 대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좋은 선례’가 되어 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들이 우리 아파트를 찾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제이드 아파트가 혜택을 본 ‘그린홈 1백만호 보급 사업’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 1백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최근 신축 아파트 가운데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대림 e-편한세상 2차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 집광판.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 3백10호를 시작으로 2010년 말까지 전국에서 7만3천7백호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제이드 아파트와 같이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창호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주택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구 가운데 60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 다음은 집열기를 통해 얻은 태양열을 온수와 난방에 이용하는 태양열주택, 연중 섭씨 약 15도로 일정한 지열을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냉난방에 이용하는 지역주택,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풍차의 회전력으로 바꿔 전기를 만드는 소형풍력주택 순이다. 연료용 수소와 대기 중 산소의 결합을 이용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주택에 대한 지원은 2010년 도입됐다.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분양시장의 블루칩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에너지 절감형’으로 설계된 아파트들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대림산업이 지난해 분양한 ‘광교 e편한세상’은 분양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평균 청약경쟁률 10.42 대 1에 계약을 90퍼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빼어난 입지 덕도 있지만 고유가 파동 속에 냉난방에너지 50퍼센트 절감기술 적용 효과 덕을 봤다는 분석이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에도 에너지절감 시스템이 대거 적용됐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비싼 편인데, 이 아파트는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난방, 태양광발전시스템, 전열교환장치, 우수정화시스템 등을 도입해 다른 주상복합 단지보다 30~40퍼센트가량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분양한 SK건설의 ‘수원 SK 스카이 뷰’도 22가지의 ‘그린기술’을 적용해 기존 아파트와 비교해 약 36퍼센트 정도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설계됐다.

현대건설도 지난해 분양한 ‘반포힐스테이트’에 태양광 발전을 적용해 가구별 전기료를 줄이도록 했으며, 단지 내 가로조명이나 수목조명 등에 소형풍력발전을 활용했다.

정부는 아파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양을 줄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20리터의 등유를 태워 나오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에너지 관련 표준주택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표준주택보다 에너지 소비량을 더 줄인 ‘그린홈 건설기준’을 내놓았다.

이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총에너지사용량을 표준주택 대비 15퍼센트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 1백평방미터인 아파트라면 단위 세대당 총에너지소비량이 시간당 17메가와트를 넘지 말아야 한다.

2025년엔 ‘제로 에너지’ 공동주택도 등장

정부는 또 공공주택에 대한 에너지 의무절감비율 목표를 2012년 25퍼센트, 2015년 40퍼센트, 2018년 70퍼센트, 2025년 100퍼센트(제로에너지 하우스)로 잡고 있다. 궁극적으로 ‘제로 에너지’가 목표인 셈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국토해양부 산하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연구단’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 40퍼센트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공사비는 10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에너지 절감 60퍼센트인 경우 공사비 증가분은 15퍼센트이며, 에너지 절감 80퍼센트 아파트 건설에는 20퍼센트의 추가 공사비가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조동후 주무관은 “곳곳에서 그린홈과 그린홈단지가 조성되고 그린홈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린홈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그린홈 보급이 활성화되면 결국 관련 기술과 고효율 기자재 개발 등이 가속화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비용도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G**

글·박경아 기자

그린홈 1백만호 사업 www.energy.or.kr



독일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엔지니어가 태양광패널을 점검하고 있다.

“20년내 총발전량 50%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효율화’ 기술에 사활걸어… 2030년 세계시장 6백90억 달러 예상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생활속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고효율화를 우리보다 앞서 실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태양열 유입을 절반으로 줄인 ‘에코글라스’가 인기를 끌고 있고, 독일에서는 연료비가 거의 안드는 전기자전거가 대인기다. 미국에서도 전력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절전형 의류건조기’ 프로젝트 수행이 한창 진행중이다.

□ 선진국들은 오일샌드, 갈탄 외에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원 다양화도 추진 중이다. 에너지 다양화 추세에 따라 구미 선진국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원(SERI) 등 연구기관은 내다봤다.



EU·독일 | 스마트 창호·전기자전거 급증

유럽은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퍼센트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20퍼센트 에

너지 세이빙 바이 2020’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엑션플랜)까지 마련한 상태다. 에너지 공급확보와 경쟁력 강화,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이 정책은 2020년까지 소형 열병합 발전소를 1천개 이상 건설하고, 또 ‘에너지 스타’ 인증을 획득한 전자제품만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또 EU는 건물분야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4퍼센트에 달한다는 것에 착안, 빌딩 에너지 절감에도 초점을 맞췄다. 자연채광과 통풍구조를 채택하고, 태양광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창호'를 도입하는 식이다.

특히 독일은 27개 EU가입국 가운데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서 다른 국가를 압도한다. 독일은 동일본 대지진 후 17개 원전 중 8개의 가동을 중단했다. 대신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량의 25퍼센트를 풍력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멘스, 에너콘, 페스트란트, 노르텍스 등 독일의 풍력발전 기업들은 해상풍력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교통분야에서의 성과도 눈에 띈다. 소형배터리와 전기모터로 작동하는 자전거인 이바이크(e-bike)는 최근 독일에서 선풍적인 인기다. 최고 시속 25~50킬로미터까지 낼 수 있는데, 1백킬로미터 주행에 드는 비용은 6백원가량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만 20만대의 전기자전거가 보급됐다. 독일자전거협회 측은 "조만간 연간 40만~60만대까지 판매량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 태양열 유입 절반 줄인 에코글라스 보급

일본은 1970~1980년대 1·2차 석유파동(오일쇼크) 이후 에너지효율화 설비와 기술을 도입했다. 에너지원 다양화로 경제체질 다양화를 꾀한 셈이다. 특히 폐열 회수와 이용, 자연광 이용을 통한 조명합리화 등을 적극 도입했다. 이에 철강과 화학 등 일본 주력산업의 에너지 원(原)단위(에너지 효율지표)는 미국과 EU와 비교해 10~30퍼센트 가량 효율적이란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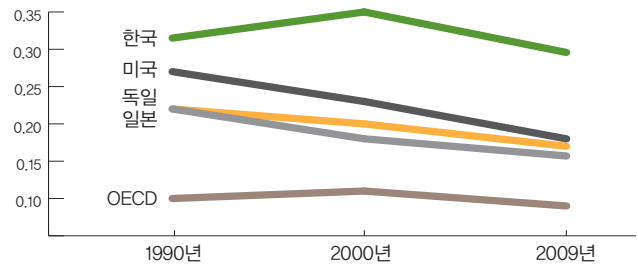
하지만 지난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에너지 정책의 일대 전환점이 됐다. 간 나오토 총리 이하 전 내각은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화에 사활을 걸었다. 과거에도 일본은 환경성(省) 주도로 매년 여름 '쿨비즈' 체제에 들어갔지만, 올해는 '슈퍼 쿨비즈'로 돌입할 태세다. 관공서에서조차 단순 반팔 셔츠뿐 아니라 반팔 폴로셔츠의 착용이 허용됐다.

'전기예보제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도쿄전력은 이달부터 석달간 전력수급 상황을 알려주는 전기예보제를 시행한다. 또 서머타임제 도입과 함께 주말에 공장을 가동하고, 대신 전력수요가 몰리는 주중에 휴무일을 설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일본인들의 라이프 사이클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는 부분이다.

최근 건축현장에서 인기를 끄는 '에코글라스'도 주목할 만하다. 에코글라스는 기존 유리창 안쪽에 단열유리를 붙이고 그 속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한 창호다. 기존 창호에 비해 태양열 유입량을 절반 이상 줄여, 에어컨 가동 후 적정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한다. 방음효과도 탁월해 이미 일본의 신축주택 중 90퍼센트는 에코글라스를 설치하고 있다.

주요국의 에너지 원(原)단위 비교

단위 TOE(천달러) 자료 OECD



미국 | 법제정... 에너지를 국가안보로 다뤄

'에너지 후진국'으로 불리던 미국도 최근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2007년 '에너지 독립과 안보법'을 제정해 에너지 효율화를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에너지 확보 및 절약, 연구개발 지원, 에너지 인프라 개선 등이 '에너지 독립과 안보법'의 주된 골자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확보 분야에서 운송용 연료 분야와 바이오 연료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오는 2022년까지 바이오 연료 생산량을 7.7배 늘리고, 비(非)농물 바이오 연료의 비중을 58퍼센트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또 거리 조명과 빌딩 분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오는 2012~2014년에 조명 효율을 24퍼센트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공공조달에서도 '그린 IT'제품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예컨대 폐휴대폰 수거 등에 앞장서는 기업에 공공납품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연간 1억5천만개씩 버려지는 폐휴대폰 처리에 골치를 앓아 왔다. 이에 미국 GSA(우리의 조달청에 해당)는 에너지 절약형 IT제품을 공공조달하는 별도의 산하조직을 최근 신설했다.

이 밖에 미국의 에너지부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염두에 두고 '전력선통신(PLC)'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전력선통신은 전기콘센트에 인터넷을 결합시켜 전원과 동작을 동시에 제어하는 식으로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기술이다. IBM과 월풀 등은 위성턴과 오리건주에서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절전형 의류건조기'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 중이다.

일본과 독일, 미국 같은 G7 선진국들이 에너지 효율화에 사활을 건 까닭은 향후 시장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6백90억달러(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산업 부문에서 1백80억달러, 건물 부문에서 5백10억달러의 시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G**

글·이동훈 기자

한류의 신성장동력 흥대 앞을 가다

인디밴드, 마니아 음악을 넘어 해외로

최근 정부가 한류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디음악 활성화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인디음악의 중심지 흥대로 찾아가 현장의 소리를 들어봤다. 최근 인디밴드에 대한 대중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인디밴드 공연장에는 관객이 상당히 많았지만, 개선할 점도 많았다.

■ 지난 6월 26일 흥대 비보이극장 지하주차장에는 공연티켓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여성이었으나 남성과 주부도 있었다. 인디밴드 '10cm(십센치)'와 '우주히피'가 함께 정기 공연하는 '아나더플레이스(Another Place) 시즌 1' 마지막 공연을 보러온 사람들이었다.

공연 예정 시각은 오후 6시였으나, 티켓 배부가 늦어져 6시40분에 시작했다. 공연 티켓은 인터넷 홈페이지(www.anotherplace.kr)에서 예매를 하면 현장에서 티켓과 순번 표를 나눠준다. 현장 티켓 배부는 오후 5시10분부터 시작했는데, 적은 인원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 30분가량 줄을 선 끝에 간신히 티켓을 받을 수 있었다.

드디어 티켓 배부가 끝나고 공연장 입장이 시작됐다. 공연장은 상당히 협소했다. 이날 관람객 수는 4백30여 명. 2층 객석까지 꽉 찼다. 정해진 좌석은 없었다. 순번 표에 따라 입장해 아무 데나 앉으면 됐다. 폭이 한 뼘보다 조금 더 넓은 객석 의자는 등받이조차 없어 매우 불편했다. 에어컨도 잘 작동되지 않아, 뮤지션들이 모

두 땀에 젖어 공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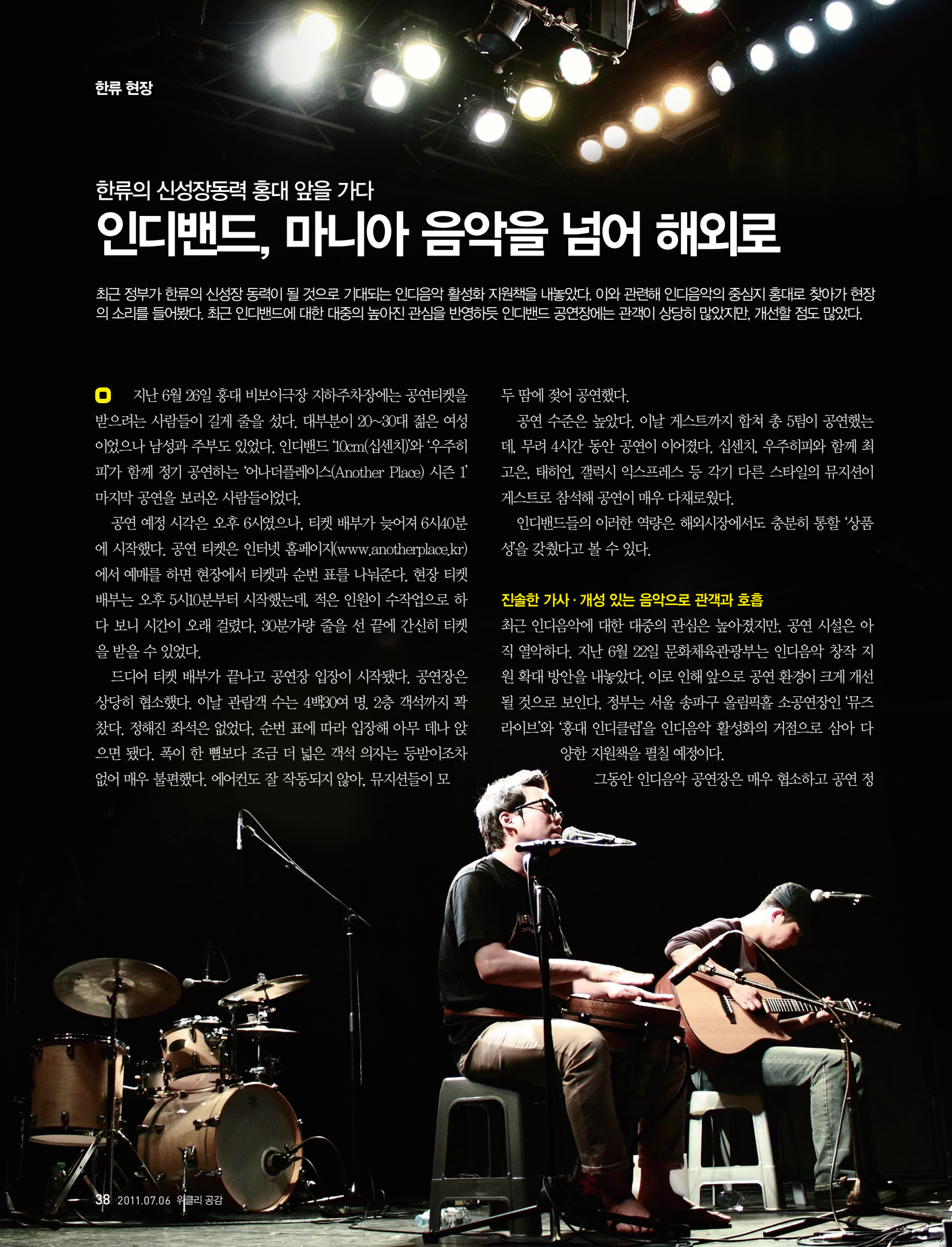
공연 수준은 높았다. 이날 게스트까지 합쳐 총 5팀이 공연했는데, 무려 4시간 동안 공연이 이어졌다. 십센치, 우주히피와 함께 최고은, 태하연, 갤럭시 익스프레스 등 각기 다른 스타일의 뮤지션이 게스트로 참석해 공연이 매우 다채로웠다.

인디밴드들의 이러한 역량은 해외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상품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진솔한 가사·개성 있는 음악으로 관객과 호흡

최근 인디음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공연 시설은 아직 열악하다. 지난 6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디음악 창작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앞으로 공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 소공연장인 '뮤즈 라이브'와 '흥대 인디클럽'을 인디음악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아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

그동안 인디음악 공연장은 매우 협소하고 공연 정



인디음악 공연 정보

공연 정보 사이트	특징	홈페이지 주소
인디팬	인디음악 전국 공연 소식, 공연 영상, 티켓예매 등	www.indifan.com
어나더플레이스	어나더플레이스 정기 공연 소식, 공연 후기 사진, 티켓 예매 등	www.anotherplace.kr
민트페이퍼	인디음악 공연정보, 그랜드 민트페스티벌 소개, 티켓예매 등	www.mintpaper.com
인디락 공연 매니아	인디음악 커뮤니티, 인디밴드 소개, 공연영상, 지역별 공연정보, 공연 후기 등	http://cafe.naver.com/2l
김기자의 인디 속 밴드 이야기	인디음악 공연정보, 인디밴드 인터뷰 및 취재기사 등	http://cafe.daum.net/IndiStory
싸이락 커뮤니티	록음악 커뮤니티, 인디음악 공연 정보, 취미 밴드 연합 안내 등	http://iloverock.cyworld.com

보도 개별 사이트에 산발적으로 있어 대중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올림픽홀 내에 인디밴드를 위한 소공연장을 마련했다. 올림픽홀 소공연장 뮤지컬라이브를 주 1회 정기 인디음악 공연 및 인디음악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인디음악의 산실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홍대 인디클럽’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공연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과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무대·음향 개보수 및 안전 점검 지원, 우수 클럽에 대한 공간 임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다양한 대중문화 양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향감독 이제훈(32)씨는 “인디밴드를 위한 소공연장은 사실 제가 꿈꾸던 일”이라며 뮤지컬라이브 개관 소식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노후화된 음향시설도 문제지만 특히 기존 공연장의 문제점으로 부적절한 시설을 꼽았다.

“제가 11년째 음향 엔지니어를 하면서 거의 웬만한 공연장을 다 가봤습니다. 음향과 무대 시설이 부족한 경우도 많지만 부적절한 시설이 설비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가 무대·음향 시설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이번 시설 개보수 작업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음향 엔지니어들을 운영자문단으로 위촉해 좋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밴드들의 해외공연 지원 필요

인디음악 공연기획사들도 정부의 지원을 환영하고 있다. 어나더플레이스 최정은 대표는 “마케팅과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별금 때문에 공연 홍보 포스터를 벽에 붙이는 것조차도 못 하고 있는데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정부의 지원 계획은 앞으로 인디음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최정은 대표는 인디음악의 해외 공연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내 인디밴드 중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지만 해외에 보여줄 기회가 너무 없습니다. 저희도 지난해부터 해외 공연을 기획하고는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보여줄 기회만 있으면 한국의 인디음악도 충분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센치도 저희 공연에 투입하기 전까지 홍대 길거리에서 공연하던 밴드였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일단 공연을 접해 봐야 즐기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G**

글·이제훈 기자

홍대 인디밴드 '갤럭시 익스프레스' “K팝 다음엔 K록 차례… 신한류 충분”

대중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번 보면 빠져드는 인디밴드가 있다. 록밴드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초등학교부터 아홉살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노래와 에너지 넘치는 공연으로 관객을 단박에 사로잡는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유명 록 페스티벌 초청 게스트 1순위로 자리 잡은 이들은 한국의 록음악을 세계에 알리며 K록의 신한류 바람을 예고한다.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외국인들은 한국에도 록음악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데, 일단 우리의 공연을 보면 매우 놀라워하며 좋아한다”며 “K팝에 이어 K록도 충분히 신한류를 물고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갤럭시 익스프레스(Galaxy Express)는 남성미가 물씬 난다. 2006년 베이스·보컬의 이주현(33), 기타·보컬의 박종현(29), 드럼·코러스 보컬의 김희권(29) 등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 셋이 모여 밴드를 결성했다. 팀명은 우주를 질주하는 느낌을 담고자 '갤럭시 익스프레스'로 했다. 만화 <은하철도 999>와 영어번역 제목이 같다.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노래는 처음 듣는 사람도 쉽게 즐길 수 있다. 시원한 가창력과 파워풀한 기타 연주로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이 때문에 팬층도 매우 다양하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군인, 아홉살까지 전 연령층이 폭넓게 그들의 음악을 즐긴다.

“얼마 전 초등학교에 공연을 갔었는데 70년대 하드록을 섞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초등학교생들도 매우 좋아하더라고요.”(박종현)

20대 초반부터 홍대 클럽가에서 공연해 온 이들은 음악적 내공이 상당하다. 2008년 정규앨범 1집 <noise on fire>를 26트랙 2CD로 발매해 2009년 제6회 한국대중음악상 록 음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왕성한 활동으로 ‘올해의 음악인상’ 받아

지난해 5월 정규앨범 2집 <Wild days>를 발매하고 그해 9월 KBS <뮤직뱅크> 역사상 최초의 라이브 생방송 공연을 가졌다. 지난 2월에는 제8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 상을 받았다.

“예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인디레이블 육성 사업으로 앨범 제작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도 지원받아서 1집을 냈고 한국대중음악상 록 부문 최우수상까지 받게 됐죠. 그런데 그 지원이 없어지면서 2집은 저희가 사비를 들여 제작했어요.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 연습실에서 MP3로 녹음작업을 했어요. 그 과정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네티즌 사이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김희권)

일부 네티즌은 ‘상까지 받은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왜 MP3로 녹음작업을 하느냐며 의아해하기도 했다고 한다.

“비용 절감 차원도 있지만, 주변의 레코드 기기를 이용해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노래방에서 녹음한 곡도 있어요. ‘나의 지구를 지켜줘’의 경우, 제가 방에서 혼자 통기타 치며 mp3로 녹음했어요.”(이주현)

이 같은 음반 작업은 홍콩에서도 화제가 됐다.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2010년 홍콩에서 열린 국제 음악 콘퍼런스 ‘뮤직 매터스’에 공식 초청돼 쇼케이스를 성황리에 가졌다. 당시 이들의 공연이 현지인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트위터 음반 작업 과정까지 현지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뮤직 매터스는 홍대 ‘클럽데이’처럼 클럽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이 이뤄지는 하나의 축제예요. 나흘간 참여했는데, 첫날 공연 중 공연장을 나가 택시 위에서 기타 연주를 하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현지인의 반응이 열광적이었죠. ‘한국의 록밴드는 굉장히 에너지 넘친다’는 소문이 나면서 다음 날부터 우리 공연에 사람이 엄청나게 몰렸어요.(웃음)”(박종현)

프랑스·홍콩에 이어 3월엔 한 달간 북미 투어

“처음엔 홍콩 사람들이 한국밴드가 록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희에게 ‘슈퍼주니어 노래할 줄 아느냐’며 한국 아이돌 가수에게만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저희 공연을 본 후 홍콩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의 록음악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이주현)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K록의 신한류 가능성을 보여준다. 2009년 ‘프랑스음악축제’와 대만의 ‘타이중 록 페스티벌’에 초청돼 한국 록을 선보였다. 나라는 달랐지만, 관객의 반응은 모두 같았다. 공연 전에는 ‘한국밴드가 록을 할 줄 알아?’였지만 공연 후에는 ‘한국밴드는 에너지 넘치고 신난다’는 반응이다.

올해는 록의 본고장 미국까지 진출했다. 지난 3월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한 달간의 북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캐나다 토론토의 ‘캐나다인 뮤직 위크(CMW)’ 페스티벌과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에 참여하고 나서 뉴욕과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총 9차례 공연을 가졌다. SXSW는 1백여 개 장소에서 2천여 밴드가 공연을 벌이는 세계적 페스티벌이다.

“미국인들은 매우 솔직하게 반응해요. ‘좋고 싫고’가 분명하죠. 한국의 록밴드를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저희를 보고 신기해했지만, 한국적 멜로디가 녹아들어 간 우리의 록을 좋아하더라고요.”(김희권)

이들은 해외 공연 시 대부분 한국어로 노래한다. 언어적 장벽은 없을까. “록은 세계 공통적인 음악 장르예요. 가사의 뜻을 몰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록이죠. 외국인들은 한국 록을 상당히 신



지난 3월 북미 투어를 다녀온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현지인들에게 ‘힘이 넘치고 신나는 친구들’이라며 호평받았다. 지난 1월 22일 미국 진출을 앞두고 열린 쇼케이스에서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선하게 생각해요. 악기 자체가 서양 것인데, 음악이 다르니까 신기하게 보는 거죠. 서양인이 가야금을 가지고 우리와 다르게 연주한다면 우리가 신기하게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이주현)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일본 아줌마 팬도 제법 있다. 일본 아줌마들이 이들의 공연을 즐기러 가끔 홍대까지 찾아온다. 최근에는 일본 팬이 더 늘었다. 지난 6월 열린 ‘서울 도쿄 사운드브릿지’를 통해 그들의 공연을 본 일본 팬들이 한국까지 찾아와 공연을 즐기고 갔다.

“인디밴드에게는 앨범제작비 지원이 제일 시급”

“K팝의 인기로 K록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고 있어요. 저희 일본 팬도 원래 빅뱅 팬인데 한국 방송을 보다 저희를 알게 됐죠. 저희는 일단 노출만 되면 다들 좋아하기 때문에 K록도 충분히 신한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다양한 인디음악 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 사실 인디밴드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앨범제작비 지원이에요. 일단 앨범을 내야 대중에게 노출되는데, 그런 지원이 없어서 아쉬워요.”(박종현)

“K록의 신한류를 위해 비행기 값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홍콩 콘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다른 나라 뮤지션들은 모두 국가 지원으로 왔더라고요. 우리는 해외 공연에 초청돼도 자비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담이죠.”(이주현)

“정말 해외 공연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인디밴드들은 직접 곡을 만들기 때문에 해외 공연을 다녀오면 좀 더 다양한 음악을 배울 수 있어 창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는 K록의 한류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김희권) **G** 글·이재남 기자



아프리카 수단 톤즈 마을 청소년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생전의 이태석 신부(오른쪽 아래). 이태석 신부에게는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이 추서된다.

신부님, 이제 웃으세요

한국의 국격을 높인故 이태석 신부 등 24명 ‘국민추천 포상수상자’로 선정

‘수단의 슈바이처’ 고(故) 이태석 신부, 평생 모은 1억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일본군 위안부 출신의 황금자 할머니, 양손이 없는 1급 지체장애인이지만 염전을 일구며 이웃돕기에 나선 강경환 대표... 국민추천 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이들 3인을 포함, 24명을 한국의 국격(國格)을 높인 ‘국민추천 포상수상자’로 선정했다.

이태석 신부 수단의 슈바이처... 나눔·헌신 몸소 실천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울지마, 톤즈>.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린 고 이태석 신부의 헌신적 삶을 주제로 한 영화다. 이태석 신부는 내전으로 피폐한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에서 봉사활동에 매진한 인물이다. 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울지마, 톤즈>는 지난해 우리 가슴에도 뭉클한 감동을 자아냈다.

의사였던 고 이태석 신부는 2001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신부가 됐다. 이후 그는 내전과 기아, 질병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에 속한 아프리카 수단으로 떠났다. 그는 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의 유일한 의사였다. 손수 병원을 열고 하루 평균 3백명

의 환자를 돌봤다. 그가 톤즈에 오기 전만 해도 환자들은 자신의 병명도 모른 채 죽어 갔었다.

이 신부는 배우지 못해 가난을 되물림하던 약순환에도 정면으로 도전했다. 12년 과정의 톤즈 유일의 학교를 직접 건립해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 남부 수단 최초로 35인조 ‘브라스 밴드’를 창단했다. 소년병으로 징집되던 아이들에게 소총 대신 악기를 듣게 했다. 이는 톤즈 마을에 일대 파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고 이태석 신부는 2008년 잠시 한국에 귀국한 사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건강을 팽개친 채 봉사에 전념한 것이 화근이었던 셈이다. 실제 그는 급할 때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치료에 매진했다. 결국 고인은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난해 1월 작고했다.



조신모

황금자 할머니 1억 쾌척한 위안부 피해자

올해 87세의 황금자 할머니는 중군위안부 피해여성이다. 13세 때 일본 순사에게 납치돼 함경남도 흥남의 유리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중 간도로 끌려갔다. 1945년 광복 후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식모살이 등을

전전하며 어렵게 살았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며 겨울철 난방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식비를 아끼며 폐지를 모은 돈으로 1억원의 거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황 할머니는 2006년 4천만원을 시작으로, 2008년 3천만원, 2010년 3천만원을 서울 강서구 장학회에 기부했다. 오히려 기부를 받아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모은 재산 1억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것이다. 황 할머니는 “어려운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서구는 황 할머니의 뜻을 기리고자 구청 로비에 부조를 세웠다. 강서구 직원과 주민들은 월 1만원씩 기부하는 ‘1인 1계좌 갖기 장학금 확충운동’을 전개해 황 할머니의 뜻을 이어 가고 있다. 또 황 할머니의 기부를 계기로 강서구는 2009년 3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구민이 사망할 경우 구민장을 치를 수 있다”는 조례도 제정했다.



조신모

강경환 대표 염전 일구는 1급 지체장애인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강경환(51) 부성염전 대표는 13살 때 지뢰사고로 두 손을 잃었다. 당시 사고로 지체장애인 1급 판정을 받은 강 대표는 사춘기 때 절망과 방황의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두

팔과 다리 하나를 잃고도 꾀꾀하게 살아가는 다른 장애인을 목격한 이후 삶이 달라졌다. 힘을 얻게 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강 대표는 1994년부터 염전 일을 시작했다. 두 손이 멀쩡한 사람도 하기 힘들다는 염전이지만 그는 오기로 약 4만평방미터의 염전을 일궈 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바닷가에서 하얀색의 짚조름한 소금을 만들어 냈다. 강 대표는 “두 손이 불편해 염전을 일구던 초기 2년 정도는 일에 익숙해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술회했다.

강 대표는 1996년부터 매년 자신이 만든 소금을 판매한 금액의

10퍼센트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 매년 수차례씩 지역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소금을 비롯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생필품을 전달하던 초기에는 소금과 기부물품을 남몰래 두고 가기도 했다. 결국 선행사실이 알려져 주변에 감동을 주기도 했다.

강 대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2001년에는 본인 스스로 마다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신보다 더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싫다”는 생각 때문이다. 현재 강 대표는 2008년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자선 단체인 ‘사랑의 밀알회를 설립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

고 이태석 신부, 황금자 할머니, 강경환 대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28일 ‘국민추천 포상자’로 선정한 인물이다. ‘국민추천 포상자’ 제도는 국민들이 직접 발굴한 숨은 공로자를 정부 차원에서 매년 포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숨은 유공자’들을 발굴해 올해부터 매년 7월 훈·포장을 수여하게 된다.

지난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한 달간 인터넷과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총 3백61건이 추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급 지자체 소속 공무원 1천여 명은 이들의 생활 형편과 주위 평판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17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 포상심사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공직심사회의를 열어 모두 2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고 이태석 신부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이 추서되는 것을 비롯해 평생 폐지수집으로 모은 1억원을 장학금으로 쾌척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 황금자 할머니, 지뢰사고로 양손을 잃은 1급 지체장애인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운 소금장수 강경환씨에게 국민훈장 동백장(3등급)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 폐지수집으로 모은 15억원을 장학금으로 쾌척한 김분예 할머니(92·목련장·4등급), 국가안보를 위해 85억원을 기부한 김용철 할아버지(89·목련장·4등급),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1백억원을 내놓은 조친식 할아버지(87·목련장·4등급), 노숙인과 빈곤층에 무료급식을 제공한 서영남씨(57·석류장·5등급) 등도 함께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은 “주변에서 감동과 희망을 준 숨어 있는 공로자들이 국민추천을 통해 정부포상을 받게 됐다”며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어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 글·이동훈 기자

신한류 스타로 떠오른 <최고의 사랑> 차승원 “나 독고진이야… 한류스타로 댕어”

‘땡땡’ 배우 차승원의 2막이 시작됐다. 최근 그가 출연한 MBC 드라마 <최고의 사랑>은 일본, 대만 등 아시아는 물론 미국까지 뒤흔들고 있다. 드라마 제목대로 최고의 신한류 스타로 떠오른 차승원을 만나봤다.



차승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한류스타이기에 앞서 진정성을 갖고 연기하는 배우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 바야흐로 배우 차승원(41)의 전성시대다. 모델 출신인 그는 1백88센티미터의 훤히한 키와 조각 같은 외모로 카리스마를 풍긴다. 최근 MBC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서 보여준 유머러스한 모습은 그의 진가를 더욱 빛나게 했다.

드라마 종영 후 그가 막내딸의 살인미소에 모든 것을 다 뺏겨지는 ‘딸 바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더욱 여심을 흔들고 있다. 드라마의 인기는 중국, 일본을 넘어 저 멀리 미국까지 흔들고 있다.

방송 내내 차승원의 평균 수면시간은 길어야 3시간이었다. 많은 대사랑과 살인적인(?) 촬영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너무 구태의연한 문답이지만, “힘든 스케줄을 어떻게 견뎌냈느냐”는 질문에 그는 “진심으로 팬들의 사랑 때문이죠”라며 활짝 웃었다.

“드라마가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사실 반신반의했거든요. 독고진이라는 캐릭터가 자칫 재수 없어 보일 수도 있고…(웃음) 한 회 한 회 촬영을 하다 보니 ‘독고진에게도 귀엽고 인간다운 구석이 많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장이 들었어요. 극본과 연출의 힘이죠. 참 많이 고맙고 감사해요.”

팬들의 댓글에 힘들어도 ‘극뽕!’ ‘충~전!’

드라마 속 도도한 말투와 거만해 보이는 독고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신중하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차승원의 얼굴에선 진심이 느껴졌다. 그도 배우이기 전에 사람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인터넷을 검색한다고 한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좋은 평가와 그의 미투데이에 열렬한 응원을 보내는 팬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차승원의 영양 보충제였다.

“간혹 극중 대사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하. ‘극뽕!’ ‘충~전!’ 사실 댓글 개수도 세어 봐요.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도 하죠. 독고진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차승원은 지난 8년여간 ‘소’자로 보이는 수염을 길러 왔지만, 극중 ‘비호감’ 구애정의 환심을 끄는 단 한 장면을 위해 과감히 깎았

다. 극본을 맡은 홍자매는 조심스럽게 차승원에게 “극중 구애정의 한마디에 수염을 깎는 독고진 괜찮아요?”라고 물었고, 그는 “오케이”라고 응수했다.

“솔직히 전 좋았어요. 그런데 싫어하는 팬들도 있더라고요. 예전 모습이 더 좋다고. 수염을 또다시 길러야 할지, 아니면 이왕 깎은 거 계속 유지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머리는 많이 기를 거예요. 왜냐하면 멜로 하고 싶으니까요. 하하하.”

40대 남자배우 중 차승원은 멜로 작품을 많이 해온 편이지만 “제대로 된 멜로는 꼭 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종종 한다. ‘연기와 배우’ 황정민도 그랬었고, ‘독고진’ 차승원도 다르지 않다. 주변에서는 이왕 로맨틱 코미디로 사랑을 받은 만큼 한 작품 더 이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권유도 있지만, 그는 당장은 멜로가 가슴에 더 와닿는다고 한다.

막내딸 예니 가을운동회 위해 달리기 연습 중

“로맨틱 코미디의 기본은 좋은 시나리오죠. 거기에 정말 예뻐 보이는 두 남녀 주인공은 필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호평을 맞춘 공효진 씨는 최고의 파트너였죠. 연기력과 배려심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정말 매력 있는 배우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로맨틱 코미디를 ‘한 번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차승원만의 멜로를 보여드릴 겁니다.”

슬하에 22세 차노아 군과 9세 예니 양을 둔 차승원은 요즘 가족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막내딸 예니의 재롱에 눈을 떼질 못한다. 더욱이 그에게 이 예쁜 아이들을 세상 밖에 나오게 해 준 아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마운 사람이다.

“드라마가 끝나고 난 뒤 가장 좋은 것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생각보다 스케줄이 많아요. CF 촬영이나 패션화보도 있고요. 그래도 9월 한 달 동안은 절대 아무 일도 안 할 생각입니다. 2011년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딸 예니의 가을운동회 달리기에 참여하는 거죠. 작년에는 못 뛰었어요. 열심히 연습해서 꼭 1등 하고 말 겁니다!”

그의 딸 자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촬영장에선 후배들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어때! 예쁘지?”라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기본이다. 독고진 덕분에 더 커진 예니의 아빠 사랑으로 그는 요즘 어깨가 더욱 으쓱하다.

“사실 요즘 매우 좋아요. 우리 예니도 <최고의 사랑>을 보고 좋아했거든요. 친구들이 ‘너네 아빠가 독고진이라며?’라고 물어보기도 한대요. 정말 너무 뿌듯했어요.”



드라마 <최고의 사랑>은 미국에서도 한드(한국 드라마)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서비스되는 드라마 전문 사이트 ‘드라마피버’에 <Greatest Love>로 번역돼 게시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실 차승원은 이미 일본에서 유명하다. 그가 찍은 2008년 영화 <시크릿>과 2010년 영화 <포화속으로>가 일본에 알려지면서 그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대만에서는 2009년 김선아와 함께 찍은 SBS드라마 <시티홀>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드라마 <최고의 사랑> 역시 한류붐을 타고 중국과 일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글로벌 인기 엮고 이달 말 대만서 팬 미팅

최근에는 미국 내 인터넷 사이트에 <최고의 사랑>이 <Greatest Love>로 번역돼 게시되면서 현지인 사이에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글로벌 인기를 입증하듯 차승원은 오는 7월 24일 대만에서 팬 미팅을 열 예정이다.

“해외에서의 뜨거운 반응이 참 고맙죠. 사실 잘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이번엔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많은 대만 팬분들이 응원을 오시기도 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더욱 자극받아서 열심히 하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요즘 차기작 시나리오를 고르느라 바쁘지만 해외 팬들의 반응 역시 꼼꼼히 챙겨 보고 있다. 인터넷 댓글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현재 대만에서 방송되고 있는 <시티홀>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현지 언론 기사도 챙겨 보고 있다고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늘 자만하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겸손하게 연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보다 앞서 가족의 사랑에 더욱 힘내서 연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한류스타’이기에 앞서 진정성을 갖고 연기하는 배우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G**

글·남해연 (스포츠서울 연예부 기자)

청년창업에 성공한 권선영·김종환씨

아이디어 입힌 공예품... 외국인들 '원더풀'

‘글로벌 위기’ 이후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일찌감치 세계 시장을 향해 인창업으로 성공한 ‘서른살 사장님’들이 있다. ‘나리공예’의 대표 권선영씨와 주식회사 ‘테일’의 대표 김종환씨가 그 주인공이다.

권선영 나리공예 대표 | 생활소품에 나전칠기 기법 도입

대영박물관 부티크 진출... 국내로 판로 넓혀

“2007년까지 영국의 디자인 관련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했어요. 그때 나전칠기의 매력에 빠져 상품화해 보고 싶었죠. 시장성을 조사해 본 결과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후 바로 귀국해 1인기업을 창업했어요. 하지만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죠.”

나리공예(www.nariart.com) 대표 권선영(31)씨는 창업 초창기를 회상하며 몇적어했다. 전통공예 기법인 나전칠기로 만든 가구와 보석함, 스마트폰 케이스, 명함 지갑 등을 디자인해 판매하는 나리공예는 현재 영국 대영박물관 부티크까지 진출한 명실공히 글로벌 브랜드다. 하지만 그녀 역시 “시작은 미약했다”고 얘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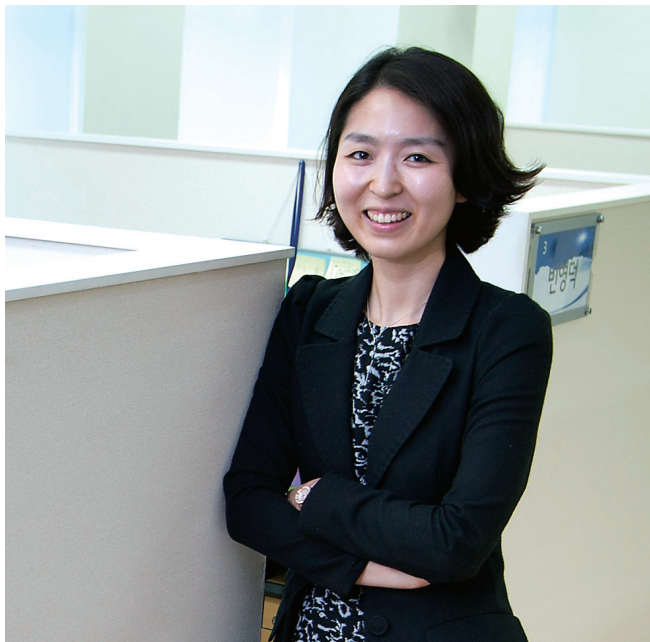
“처음엔 무조건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했어

요. 공중전화부를 뒤져 일일이 텔레마케팅을 하기도 했고 바이어들에게 무턱대고 상품 소개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죠.”

카다란 짐 가방 5개를 혼자 짊어지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지의 중소기업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처음 몇 달간은 오직 ‘문을 두드리기만 했다’”는 그녀다. 하지만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 보니 창업 자금도 바닥나기 시작했다.

“다시금 창업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때 알게 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희망과도 같았어요.”

그녀는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 개포점에 입주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사무실 지원뿐 아니라 그녀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마케팅과 무역, 회계 관련 교육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그녀는 더욱 체계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해 나갔다. 그 결과 한 중소기업으로부



권선영씨는 나전칠기의 매력에 빠져 나전칠기로 만든 가구와 소품으로 창업했다. 자개를 활용한 스마트폰케이스는 세계 시장에서도 통했다



김종환씨는 이미 제품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제품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그가 만든 '달잔'은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터 VIP 기프트용 납품 의뢰에 대한 '러브콜'을 받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이후 대영박물관 부티크와 두바이 호텔 내 기프트숍 부티크 등에서도 납품 의뢰가 들어왔다.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해외 수출만 해 오던 나라공예는 최근 국내 판매도 시작했다. 그녀는 "해외 박람회에 참가했던 것이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세계 각국이 참가하는 해외 박람회에서는 자신의 상품을 알릴 수도 있지만,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어요. 트렌드를 확인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해온 권선영씨는 "이제서야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은 '대박'을 꿈꾸기보다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테일 대표 | 막걸리 담으면 달이 뜨는 '달잔' 개발

도쿄 전시회에서 5백개 불타... 창업 6개월새 매출 8천만원

"저는 제품에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제가 만든 잔은 그냥 막걸리 잔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은 막걸리잔이에요."

'이야기가 있는 디자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주식회사 테일(www.tale-design.com)의 대표 김종환씨는 아이디어발전소로 불린다. 그는 잔 속 음료의 양(높낮이)에 따라 달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일명 '달잔'으로 창업에 성공했다. 그가 만든 달잔은 지난해 농

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막걸리 표준 잔 공모전에서 고급형 부문 1위를 수상하며 이미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가져갔던 5백개가 순식간에 팔리기도 했다.

현재 달잔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사동·홍대 등 몇몇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일본 수출을 성사시켜 현재까지 매출액만 잠정 8천만원에 이른다. 졸업한 지 불과 1년 남짓, 창업한 지 6개월 만의 일이다.

홍익대학교에서 제품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대학 3학년 시절부터 일찌감치 '창업 전선'에 나섰다. 그는 "창업 자체에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스스로 창업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창업 전 그는 선배와 함께 디자인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의 재능에 대한 입소문을 듣고 일찌감치 스카우트를 제의해 오는 기업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1인창업을 택했다.

그 역시 권씨처럼 강남 청년창업지원센터 개포점에 입주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센터 옆 자리에 있던 1인 소셜마케팅 대행업체 '아이블루' 대표 김성운씨와 손잡고 회사를 합병해 법인설립까지 마쳤다. 제품개발과 디자인은 그가 담당하고, 마케팅 업무는 전적으로 김성운씨가 담당하고 있다.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뜻에서다.

김씨는 "올해는 싱가포르나 대만, 홍콩 등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향후 서유럽, 북유럽, 북미, 일본 등 선진국에 고가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 글·박근희 기자 / 사진·염동우 기자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우승 신주연 씨 “국내에서 패션공부해도 뒤처지지 않았죠”

한국은 더 이상 패션의 불모지가 아니다. 지난 2월 뉴욕에서 열린 ‘콘셉트 코리아’ 행사에서 한국 디자이너 4명이 선보인 작품들은 큰 호평을 받았다. 더불어 재능 있는 신인 디자이너 발굴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종방한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시즌 3의 우승자 신주연씨가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순수 국내파 신주연 디자이너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시를 읽고 영화를 보는 등 다양한 문화생활이 영감의 원천이다”고 말했다.

□ 지난 4월 한 케이블방송에서 방영한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이하 ‘프런코’) 시즌 3이 인기리에 종방했다. 시즌 3 최종회는 20~34세 여성 시청자층에서 평균 1.86퍼센트, 최고 2.35퍼센트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 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가구 시청률 또한 평균 1.50퍼센트, 최고 1.93퍼센트까지 오르며 최종 우승자에 대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기도 했다.

시즌 3의 우승자 신주연씨는 순수 국내파 디자이너로 더욱 화제를 모았다. 신씨는 최종회에서 ‘감정의 치유’를 콘셉트로, 실험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심사위원들은 신씨를 “디자이너로서의 기초가 너무나 튼튼한 도전자”라며 “다양한 소재와 과감한 색상, 강렬한 무늬를 활용해 하나의 유기적인 컬렉션을 완성해 냈다.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컬렉션”이라고 호평을 쏟아냈다.

5백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프런코〉에서 최종 우승한 소감은?

“날아갈 듯 좋았다는 표현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다가 최종 합격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뛰어다녔죠.”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매회 미션이 있었는데 스트레스나 부담은 없었나요?

“이미 대학이나 SADI(Samsung Art & Design Institute)에서 디자인에 대한 고뇌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부담은 없었어요. 방송을 보면 사회자가 “몇 분 남았습니다”라며 재촉하는데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 뭔가 초인적인 힘이 생기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웃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게 출연자 대부분이 경험이 많지 않은데 한 달 동안 옷을 열 벌 이상 만들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미션을 하나씩 마칠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이 느낌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출연자 모두가 열심히 미션을 수행하지 않았나 싶네요.”

경쟁자 중 유학파가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위축되진 않았나요?

“전혀요. 저는 국내에서 패션을 공부했지만 악착같이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보력이나 패션의 역사에 있어서 뒤쳐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상이 강해서 오해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머리도 노랑고 방송에서도 거칠고 강한 성격으로 비치니까 많이들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를 노는 것 좋아하고 책 정말 싫어하는 사람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소란한 것을 싫어하고 책이랑 전시회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디어 리서치가 취미이자 특기인데 어디서 많이 찾으시는지?

“저는 노는 게 일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시를 읽고 영화를 보는 등 다양한 문화생활이 영감의 원천이죠. 시간이 없을 때는 해외 사이트에서 이미지 검색하거나 책과 영화를 보고 시간 있으면 전시회를 보러 가요. 전시회를 보면 요즘 작가들이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지 알 수 있고 패턴이나 디자인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영감을 받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말하겠지만 주변의 모든 것이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동안 디자인 영감을 주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뭔가요?

“굳이 하나를 꼽자면 신달자 선생님이 쓴 <백치애인>이라는 책이에요. 20년 전쯤 저희 엄마가 읽으셨던 책인데 이제까지 제가 읽었던 책 중 단연 1순위예요. 인간의 공통적인 목적이자 근본의 감정이 바로 사랑과 이별이잖아요. <백치애인>은 그 감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책이에요. 사랑뿐만 아니라 혼자 힘든 시간을 이겨내거나 고민이 있을 때면 그 책을 읽으면서 답을 얻는 듯한 느낌이 들죠. 1백 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한마디로 중학교 때는 반항아, 고등학교 때는 모범생이었어요. 어릴 때는 학교 끝나면 음악 연습하러 가는 착한 딸이었죠. 그러다 중2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엄마의 목표가 제가 되고 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출도 하고 왕따도 당해 봤어요.

인기가수 팬클럽에 가입해 따라다니기도 해봤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공부만 했어요. 매일 2~3시간 자면서 3년을 보냈죠.”

처음부터 패션 디자이너를 꿈꿨었나요?

“어릴 때는 음악가가 꿈이었어요. 그러다 집이 힘들어지고 클래식을 못 하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음악밖에 없는데 악기를 못 다루게 됐으니 작곡가가 되자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엄마가 절



〈프런코〉에서 우승한 후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신주연(왼쪽)씨와 신씨가 디자인한 옷을 입은 깜짝 게스트 모델 최여진

대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던 중 ‘신주연은 패션이나 스타일이 독특하다’는 친구들의 말이 생각났고 저에게 패션 디자인과가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원서를 넣고 난 뒤 시내에 있는 미술학원을 돌면서 ‘난 성격이 굉장히 좋아서 서울대도 갈 수 있는데 돈이 없다. 나를 가르치면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제 ‘똥끼’에 반해 한 학원 원장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미술학원을 거의 공짜로 다녔어요. <프런코>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원장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기 힘들었겠죠.”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친구들과 청소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금 더 자기 목표의식을 갖고 나아갈 방향을 남과 다르게 정하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목표가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남과 같지 말라고 해서 특이해지라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습득해야 한다는 거죠.

디자이너라고 해서 디자인만 잘하면 안 돼요. 내 디자인이 어떻게 분류돼서 어떤 옷들과 진열되고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판매되는지 알아야 디자인을 하거든요. 또 좋은 옷을 봐야 좋은 옷을 만들어요. 보통 학교에서는 디자인 테크닉을 가르치지 좋은 옷이 어떻다는 걸 가르치진 않거든요. 인턴 등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G**

글·이자는 (중앙대 사진학과 4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단은 참신한 시각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이슈, 정책 등을 취재하고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이들의 열정 넘치는 이야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식블로그 도란도란문화놀이터(culturenori.tistory.com)에서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다.

한국 음악축제 참가한 세계적 아티스트 도우미 유재환씨 “섭외한 낯선 아티스트 대박 나면 뿌듯”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세계적 아티스트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국가 이미지가 큰 파급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세계적 아티스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한 G20세대 대학생이 있다. 월드DJ페스티벌과 춘천국제마임페스티벌, 사일런트디스코 등의 행사장에서 세계적 아티스트들에게 한국을 알려준 대학생 유재환씨를 만나보았다.



세계적 아티스트들의 한국 체험을 도와준 유재환씨는
소속 서강대 경영학과 4학년 좌우명 “Live, Love, Laugh, Learn!”
개인미디어 트위터 @Mark_MyWords_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접하던 유명 아티스트를 처음 공항에서 만났을 땐 떨려서 아무 말도 못 했어요. 다행히 그분들이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런 분들에게 먼저 다가갈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G20세대가 G20세대에게’를 위해 필자가 인터뷰를 한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를 자신의 영역에서 ‘국가대표’라고 생각했다. 이번에 만난 유재환(26·서강대 경영학과 4년)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이 강해 보였다.

가이드 역할을 하며 어떤 분들을 만났나요?

“저는 단순 가이드가 아니라 직접 세계적 아티스트들을 섭외해 입국부터 출국까지의 모든 활동을 관리하는 ‘프로모터 겸 투어 매니저 겸 가이드’ 역할을 했어요. 지난해와 올해 월드DJ페스티벌(이하 월드페)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을 주로 맡았어요. 월드페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lectronic Dance Music)’ 축제로는 국내에서 제일 재미있다고 소문난 축제입니다.”

올해는 2박3일 동안 경기도 양평군에서 치러졌고 수만 명의 관객이 모였죠. 올해 월드페에는 세계적 뮤지션인 마르쿠스 술츠, 아비치, 다다 라이프, 프리메이슨즈 등 해외 유명 아티스트 총 30여 개 팀이 참여했어요. 제가 담당한 팀은 이 중 8팀이었죠.”

대학생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을 하셨네요. 어떤 기회를 통해 이 일을 하게 됐나요?

“지난해 휴학을 하고 뭔가 재미있는 일을 찾다 우연히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글귀 하나를 보고 끌렸어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음악을 워낙 좋아해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원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한강 난지지구에서 열린 월드페에 해외 아티스트 의전으로 활동하게 됐죠.”

당시에 제가 담당했던 아티스트가 프리메이슨즈 멤버 둘이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머물던 3박4일 동안 마치 ‘일대일 수비’를 하듯

찰싹 붙어다녔어요. 입국하는 순간부터 출국할 때까지 식사, 서울시내 관광, 행사 참여 등 모든 활동을 같이한 셈인데 서로 정말 친해졌어요. 그분들은 제게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모터를 할 생각은 없느냐며 원한다면 자신들이 아는 아티스트, 에이전트들한테 추천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아티스트들은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있던가요?

"한국은 물론 아시아권 국가에 처음 오는 아티스트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입국할 때부터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현대적인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 곳곳을 둘러보며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말들을 했어요. 호텔에서 초고속 인터넷으로 필요한 음악 파일들을 다운받고 '세상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이라며 극찬을 하더군요. 내년에도 꼭 초대해 달라고 했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해외 아티스트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모든 책임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월드컵 때도 제가 맡은 팀들을 관리하느라 일주일 동안 10시간도 채 못 잤어요. 보통 아티스트들은 공연 전날 입국해 공연 다음 날 출국하는 게 관례라 2박3일 축제를 운영한다고 하면 저는 4박5일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초긴장 상태로 모든 진행상황을 체크해야 해요. 정해진 일정과 동선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자칫 차질이 생기면 견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한번은 아티스트들이 공연시작 3시간 전에 입국하는 일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행사장까지 2시간가량 자동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마침 주말이어서 교통체증이 심했어요. 전 행사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의전차량 기사님, 그 아티스트의 의전 담당자와 5분 간격으로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으며 어느 길로 오는 게 빠를지 수시로 알려드렸고, 결국 공연시작 20분 전에 행사장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정말 아찔했죠."

그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뿌듯했던, 또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경험은?

"한국에 온 적이 없는 아티스트를 섭외하는 일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 아티스트를 한국 관객이 얼마나 좋아할지도 모르고, 또 그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도 모르니까요."

올해 월드컵 때 만났던 스웨덴 출신의 듀오 다다 라이프가 그런



지난 5월 경기도 양평군에서 열린 월드DJ페스티벌에 참가한 유재환씨(오른쪽에서 네 번째)와 의전담당, 그리고 해외 아티스트들. 해외 아티스트는 DJ 탕고(왼쪽에서 두 번째)와 블랙 매터(왼쪽에서 세 번째) 그리고 DJ 안젤로(오른쪽에서 세 번째).

경우였어요. 그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외국 DJ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팀이었죠. 계약을 진행한 이후 미국의 유명 음악 축제를 방문해 직접 그들의 공연을 봤더니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은 기대를 많이 했지만 한국 반응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월드컵 축제 둘째 날 두 아티스트의 무대가 시작됐고, 소품으로 준비한 거대한 바나나와 삼페인병 풍선을 관객들한테 던지고 나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그들의 가장 유명한 곡이 나오니 정말 몇만 명이 다 같이 뛰면서 열광하더군요. 무대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어요."

재환씨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고,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했던 일이 완전히 새롭고, 도전적인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보다 더 먼저, 더 많이, 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제게 이번 일은 단순히 '일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다양한 사람들을 알아간다고 생각했기에 하나의 '즐거움'이 됐어요."

좋아하는 것, 진정 즐거운 것을 고민하다 찾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저처럼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으신다면 저보다 몇 배 더 값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G** 글·박지용 (현대자동차 홍보팀)

“문화복지는 사회통합·신성장동력원”

이어령 전 장관 “부가가치 높은 문화예산은 2퍼센트만 올려도 효과는 20퍼센트”

올해 우리나라 문화 관련 예산은 3조4천5백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2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는 OECD 20개국 평균 문화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6월 28일 열린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류로 상징되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지난 6월 28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는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부제: 상상과 창조의 시대, 문화정책2.0)'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 등 범(汎)문화계 인사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21세기 문화창조의 시대에 사회통합 및 신(新)성장동력원으로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기조강연자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우리는 경제자본이 문화자본으로 이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문화자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사회복지에 밀려 문화부 예산이 가장 먼저 깎이곤 하는데 생선을 주는 게 사회복지라면 생선을 잡는 요령을 알려주는 게 문화복지다. 문화예술은 부가가치가 높아 문화예산을 2퍼센트만 늘려 줘도 20퍼센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화계 인사 1백여명 문화재정 대토론회

최근 유럽의 한류(韓流) 붐을 이끌고 있는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제 문화는 자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부가가치가 큰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는 한 분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우리의 문화가 퍼



지난 6월 28일 열린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이창 한국관광공사 사장, 영화배우 독고영재, 이상벽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 태진아 대한가수협회 회장, 장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배우 박해미, 이효정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문대성 IOC 위원.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왼쪽 사진)에 참석한 한류스타 슈퍼주니어의 이특은 “외국인들은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를 접하게 된다”고 말했다.

질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이특씨는 한류를 대표하는 가수로 활동하면서 느낀 바를 이야기했다. 그는 “많은 외국 팬들을 접하며 느끼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듣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를 궁금해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도 배우게 된다. 음악에는 문화를 알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한류의 지속적 확장·경쟁력 강화” 한목소리

한창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는 “문화의 설 자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등 국가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류 기금을 조성해 문화를 창출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한류를 지속 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K-팝은 훌륭한 상품이지만, 한류 마케팅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류 열풍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잠재된 문화를 발굴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뮤지컬 ‘맘마미아’를 수입·제작한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는 “뮤지컬 ‘맘마미아’는 10년 동안 2백17개 도시에서 공연하면서 입장권 매출만 4조2천억원에 이른다.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3조 4천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주역인 시대”라며 콘텐츠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전 태권도 국가대표선수인 문대성 IOC선수위원은 “국가대표선수의 하루 훈련수당은 3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선수들의 훈련비 현

실화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포츠 문화는 국가 브랜드를 알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면서 “스포츠 분야의 외국 인재를 창출하고, 은퇴 선수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우 이효정씨는 “얼마 전 문화부가 발표한 ‘대중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은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대중예술인 지원방안이 망라돼 있다”면서 “이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저작권 보호,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도 논의됐다.

한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행사 시작 전,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문화예술인들의 공감대 속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화예산의 전체 예산 비중 내년 1.5퍼센트 목표”

정 장관은 “문화는 이 시대의 자본이자 국가전략”이라면서 “최근 K-팝이나 신한류(新韓流)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에 맞춰 우리의 문화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충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현재 정부 예산의 1퍼센트 남짓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내년에는 전체 예산의 1.5퍼센트(4조5천억원)로, 2013년에는 2.2퍼센트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재정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문화 관련 예산은 3조4천5백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2퍼센트에 불과하다. 반면 OECD 회원국 25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벨기에 등 예산지출 구조가 상이한 연방국가 5개국을 제외한 20개국의 2008년 기준 문화예산은 평균 2.2퍼센트 수준이다. ⑥

글·송혜림 (공감코리아 정책기자)



무릉계곡의 최고 절경인 쌍폭. 떨어지는 물줄기는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다.

강원도 동해시

무릉계곡 선경에 여름을 잊고 망상 명사십리에 시름을 묻다

이곳에서 한 달쯤 꼭 쉬었으면 싶다. 귓속으로 파고드는 물소리를 듣다 기어이 신발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발을 담근 채 바람이 나뭇잎을 쓸고 가는 소리를 듣는다. 비 내린 뒤 말끔하게 씻긴 하늘에서 내려온 햇살이 나뭇잎을 뚫고 부챗살처럼 퍼진다. 물살에 어롱대는 햇빛들. 발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물의 감촉이 좋다.



작가 심상대는 <묵호를 아는가>에서 묵호 바다를 '한 잔의 소주와 같은 바다'라고 표현했다. '단숨에 들이켜고 싶은 고혹적인 빛깔'은 청량한 짙 내를 풍겼다.

강원도 동해시 무릉계곡. 청옥산(1천4백4미터)과 두타산(1천3백53미터) 자락에 있다. 기묘한 바위들이 계곡을 이루며 흘러내리고, 그 계곡에 폭포와 크고 작은 소들이 수없이 놓인 바위골짜기다. 그 모습이 오죽 아름다웠으면 '무릉'이라고 이름 붙였을까.

조선 선조 때 삼척부사를 지낸 김효원은 무릉계곡을 품은 두타산을 주유하고 '하늘 아래 산수로 이름 있는 나라는 해동조선과 같음이 없고, 해동에서도 산수로 이름난 고을은 영동 같음이 없다. 영동에서도 명승지는 금강산이 제일이고 그다음이 두타산이다'고 기록했다.

계곡 초입에 무릉반석이 있다. 3백~4백명은 넉넉히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넓다. 그 넓이가 1천5백여 평에 달한다. 옛 시인묵객들이 이 바위에서 술을 마시고 시를 읊었다. 흥에 겨워 이름을 써놓은 이들도 있었다.

무릉반석 지나 쌍폭·용추폭포로 이어진 절경

조선시대 4대 명필로 유명한 양사언도 무릉계곡을 찾았다. '무릉선원 중대천석 두타동천(武陵仙源 中臺泉石 頭陀洞天)'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신선이 노닐던 이 세상의 별천지, 물과 돌이 부둥켜서 잉태한 오묘한 대자연에서, 잠시 세속의 탐욕을 버리니 수행의 길이 열리네'라는 뜻이다.

바위를 지나면 삼화사다. 신라 때 창건한 절이다. 본디 매표소

부근에 있었는데, 1977년 쌍용양회 공장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신라시대 삼층석탑과 철조 노사나불좌상 등 보물이 있다.

삼화사를 지나면서 본격적인 숲길이 시작된다. 평탄한 길이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심하지 않아 그다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숲길은 햇빛이 새어들지 않을 정도로 울창하다. 길 양옆으로 아름드리 소나무와 굴참나무가 몸을 배배 비틀며 서 있다. 굴참나무 껍질은 어른 손바닥만큼이나 두껍다.

약 20분을 더 오르면 학소대와 만난다. 거대한 암반이 벼루를 세워놓은 듯 떡 하니 버티고 서 있다. 이 암반 틈으로 흰 물줄기가 지그재그로 내려온다. 학소대란 물줄기가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학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학소대에서 잠시 멈췄던 길은 계속 숲길을 따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렁찬 물소리가 들린다. 철제 계단을 올라서면 만나는 절경. 무릉계곡의 자랑인 쌍폭이다. 두 개의 폭포가 한 소에서 만난다.

쌍폭 위쪽에 위치한 용추폭포에서 떨어진 물과 두타산 박달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지는 곳이다. 소 주위에는 뽕안 물보라가 안개처럼 일어난다. 왼쪽 폭포는 계단처럼 층층진 바위를 타고 물이 흘러내리고 오른쪽 폭포는 한번에 급진직하. 왜 무릉계곡인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무릉계곡의 또 다른 절경은 용추폭포다. 쌍폭에서 2~3분 거리



추암해변에 솟은 기묘묘한 바위. 바위에 부딪히는 추암의 파도 소리는 한국의 백 명소리로 선정 됐다.

다. 오목한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줄기가 소를 향해 주저없이 떨어져 내린다. 용추폭포가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삼척부사 유한전은 폭포 하단 절벽에 ‘용추(龍湫)’라는 글씨를 새겼다.

폭포 아래에는 ‘별유천지(別有天地)’라는 글귀도 또렷이 남아 있다. 고려시대 학자 이승휴가 은거하면서 ‘제왕운기’를 엮고, 영화감독 배용균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의 촬영지로 무릉계곡을 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리라.

소에서는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긴다.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용추폭포는 3단 폭포다. 밑에서는 맨 아래쪽 폭포밖에 보이지 않지만 철제 계단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면 3단 폭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망상해수욕장은 동해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이다. 알맞게 자란 고만고만한 송림을 두른 해안선은 눈썹처럼 휘어져 있다. 모래밭은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 곱다. 해변의 크고 넓으며, 길이가 5킬로미터에 달해 ‘명사십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을 햇살이 녹아내리는 맑은 바다는 온통 쪽빛이다. 파도소리를 들으며 한가롭게 해변을 거니는 연인들이 눈에 띈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상우와 은수가 파도소리를 녹음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망상해수욕장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동해바다를 옆으로 끼고 어달리까지 이어진다. 이 중 4킬로미터에 이르는 어달리 해안도로는 짧지만 해안 드라이브의 낭만을 맛볼 수 있는 구간. 길은 바다를 따라 이리저리 휘어지고 차창 옆으로는 파도가 밀려온다. 손바닥만 한 포구에서부터 횃집, 까막바위 등 볼거리가 많다.

해안선의 아기자기한 멋에 영화감독들 러브콜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묵호항이 나온다. 묵호항은 동해에서 항구의 정취를 가장 잘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묵호항은 아침에 찾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 밤새 오징어잡이를 마친 배들이 뱃고동을 울리며 돌아오는 새벽항구는 상상한 생명력이 살아있다. 경매에 열을 올리는 경매사들과 동해시 횃집에서 나온 상인들로 북적인다.

묵호 어시장 뒤편 산등성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붉고 푸른 지붕을 얹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보인다. 묵호항에서 이 마을까지 ‘등대오름길’이라는 예쁜 길이 이어진다.

길 끝에 묵호등대가 서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길을 따라가다



목호 등대오름길에는 예쁜 벽화가 그려졌다(위쪽 사진). 목호는 오징어 집산지로도 유명하다.

보면 옛 목호항의 정취와 마을의 풍경을 추억하는 벽화들을 만날 수 있다. 출항하는 오징어배, 해풍에 말라가는 오징어, 대포집과 이 밭소, 구멍가게 등의 벽화들이 마음 한쪽을 짝하게 만든다.

목호등대를 찾다보면 저물 무렵이 좋을 듯. 등대에 불이 들어올 때면 수평선 가득 오징어잡이배의 불빛이 돈다. 망망한 바다에 두둥실 떠 있는 어회는 꿈결처럼 아름답다. 목호등대는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촬영지기도 하다.

길은 계속 흘러 추암해수욕장에 닿는다. 추암해수욕장은 TV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나오는 일출 장면을 찍은 곳이다.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수십만 명의 해맞이 관광객이 추암해수욕장을 찾는다. 해변 왼편에는 갖가지 형상의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는데 그중 절묘하게 생긴 바위 하나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다. 이 바위가 바로 '쫓대바위'다.

바위 틈으로 불쑥 솟아오르는 일출은 가슴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든다. 조선 세조 때 한명회가 강원도 제철사로 있으면서 그 경관에 취한 나머지 미인의 걸음걸이에 비유하여 '능파대'라고 부르기도 했던 곳. 바위에 부딪히는 추암의 파도 소리도 아름다워 한국의 1백 명소리로 선정돼 있다. **G** 글과 사진·최갑수(시인·여행작가)

여행·정보

가는 길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강릉 분기점에서 동해고속도로를 갈아 탄 뒤 망상IC에서 빠져나와 7번 국도를 이용하면 된다. 국도를 이용할 경우 38번 국도 평택과 제천, 태백을 통과해 동해로 가거나, 42번 국도 원주와 정선을 걸쳐 동해로 가는 노선이 있다.

잠잘 곳 망상해수욕장 앞에 **망상그랜드관광호텔**(033-534-6682)이 있다. **망상오토캠핑장**(033-534-3110, www.campingkorea.or.kr)은 국내 최초의 자동차 전용 캠핑장. 망상해수욕장에 있다. 오토캠핑장, 캐러밴(캠핑카), 캐빈하우스(통나무집), 아메리칸코티지(목조연립형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숙박시설이 있다. 펜션과 민박도 많아 숙박 시설은 충분한 편이다. 동해시청 **관광진흥과**(033-350-2473)로 연락하면 숙박 시설을 소개받을 수 있다.

먹을 곳 목호항 인근에서 오징어 물회를 맛볼 수 있다. 여느 집이나 맛은 비슷하다. 어딜리에는 횡집타운이 만들어져 있다. 목호항 주변에 곰치국을 하는 집이 많다. 20여 년 전만 해도 그물에 곰치가 걸리면 그냥 버렸다. 뱀처럼 징그럽게 생겼다는 이유 때문. 이때 물속에 빠지면서 '탐뽕탐뽕' 소리를 낸다고 해서 '물탐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이제는 동해의 별미로 자리 잡았다. 곰치 몇 토막에 묵은 김치 송송 썰어 푹 끓여낸 곰치국은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맛이 일품이다. **동해바다곰치국**(033-532-0265) 등이 있다.

피곤한 눈과 목을 시원하게 풀어주자

태극권은 수천 년 중국 무술의 지혜를 담고 있는 보통사람을 위한 건강운동인데, 심신을 동시에 다스리는 기공의 효과도 크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태극권, 우리나라 최고의 명인인 이찬 선생(세계태극권연맹 부주석·대한태극권협회 명예회장 겸 총교련)이 국민건강을 위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치유의 태극권'을 최근 <30분 태극권, 테라피 타이치>(동아E&D)로 정리해 출간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찬 선생이 직접 시범을 보인다. **G**

피로한 눈을 말끔히

우리의 눈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모니터에 사로잡혀 있다. 자주 눈이 아프고 충혈되는 것은 물론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자치기도 한다. 건강한 눈은 업무의 효율을 높여줄 뿐 아니라 활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에 눈을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 약물이나 치료 없이 간단한 자극을 통해 눈을 튼튼히 하고 시력을 증강하며, 눈의 침침함을 없애 주는 눈 주변 자극법을 따라해 보자.



1 엄지를 가볍게 뺨에 대고 장지 끝으로 양쪽 눈썹 밑 눈언저리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누르며 문지른다. 9회 반복.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눈 밑을 문지른다. 9회 반복.



3 눈썹 끝의 바깥 부위를 안에서 바깥으로 9회, 바깥에서 안으로 9회 돌리며 가볍게 지압한다.



4 엄지와 검지로 양 눈 안쪽의 눈물샘 부위를 가볍게 눌러준다. 36회 반복.



빠른 목을 부드럽게

하루종일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읽고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하는 공무원, 회사원들이 많이 있다. 가정주부도 고개 숙이고 하는 일이 많다. 억눌려 뻗뻗하고 통증있는 목을 부드럽고 시원하게 치유해주는 간단한 동작을 따라해 보자.



1 양손을 허리에 자연스럽게 걸치고 선다. 어깨도 자연스럽게 떨어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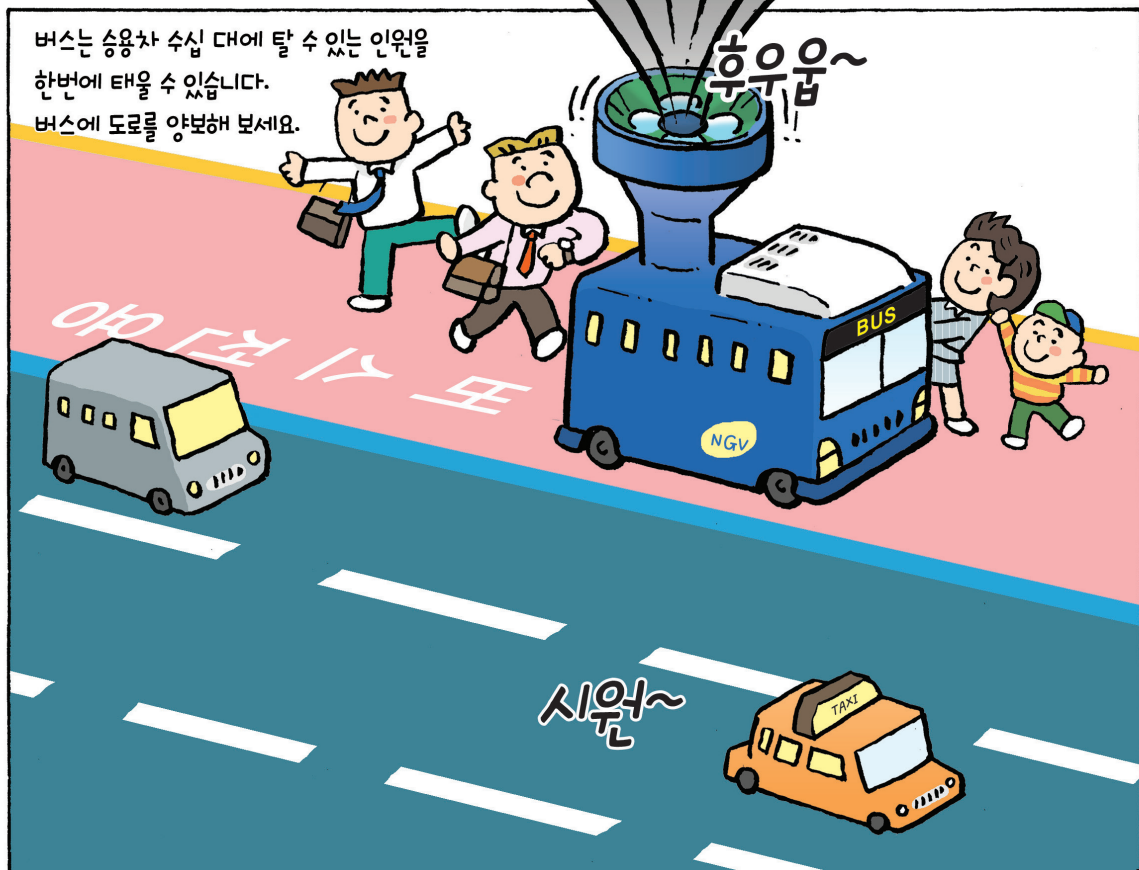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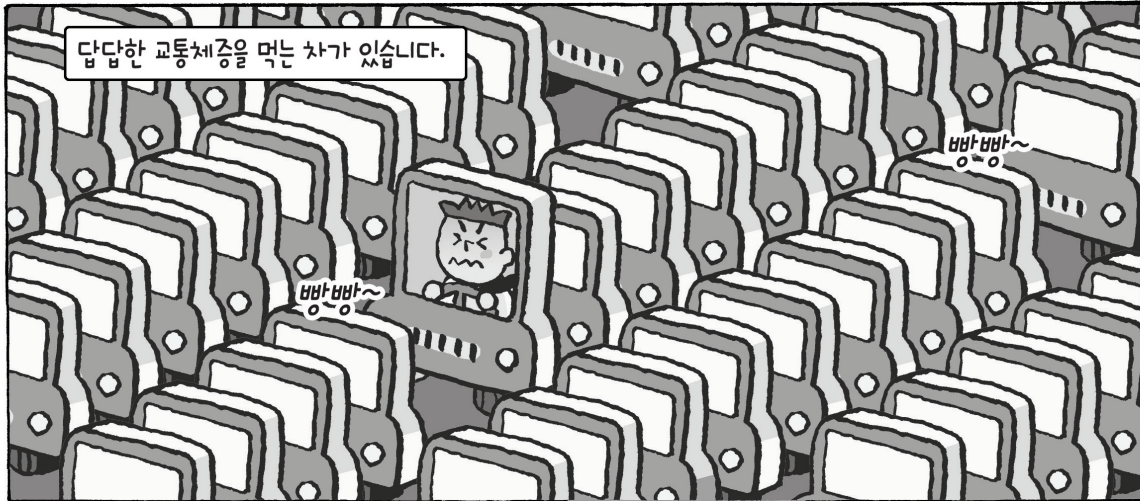
2 숨을 들이쉬며 왼쪽을 돌아본다. 이때 허리도 머리를 따라 돌리되 양손은 움직이지 않는다.


3 숨을 들이쉬며 원위치로 돌아온다.

4 같은 요령으로 오른쪽을 돌아보며 천천히 허리를 돌린 다음 원위치로 돌아온다.

바람이 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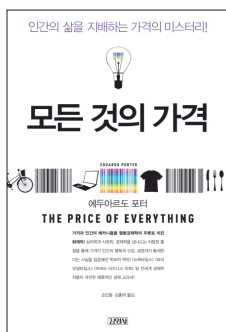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도로가 시원해지면 지구도 시원해집니다. 

〈모든 것의 가격〉

나는 얼마? 너는 얼마?



에두아르도 포터 지음
김영사 펴냄 · 1만4천원

“가격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가격의 신호에 따라 이쪽이 아니면 저쪽 길을 선택하게 된다. 결국 모든 결정은 우리가 각각의 대안에 서로 다른 가치를 할당하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에두아르도 포터가 쓴, 도발적인 제목이 붙은 〈모든 것의 가격〉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언뜻 보면 소비자가 시장 가서 물건 고를 때를 염

두에 두고 한 말 같으나,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 걸쳐 그렇다는 말이다. 목차에 나오는 ‘사물의 가격’은 이해가 가지만, ‘생명의 가격’ ‘여성의 가격’ ‘신앙의 가격’ 등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불편한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기만 할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대형사고가 나면 처음에는 원인과 대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지만, 끝에는 반드시 보상문제로 한번 더 시끌벅적해진다. 생명이 가격이 있지 않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저출산도 결국은 ‘가격’의 문제로 귀결

이 책에 실려 있는 한 예화를 보자. 9·11테러 이후 희생자 보상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9·11희생자 보상기금이 마련됐다.

문제는 희생자의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사망한 근로자가 받고 있던 임금을 기준으로 사망자의 연령과 배우자 여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액수를 조정”한다는 뜻이다.

보상결과를 보면, 생전의 불평등이 사후(死後)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봉 4백만 달러 이상이었던 희생자의 직계가족에게는 6백40만 달러가 지급되었다. 가장 적은 보상을 받은 희생자는 25만 달러를 받았다. 한번,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얼마짜리인가?

일부다처제에서 일부일처제로 바뀐 이유도 가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속을 통해 부(富)를 얻는 저개발사회에서는 자식교육에 투

자하는 것이 ‘남는 장사’가 아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가급적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좋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농경사회의 경우 자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뜻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자질과 관계없이 아내의 숫자를 늘려 아이를 더 많이 낳으려는 전략을 선택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전문 직업에서 일하는 것이 큰 부를 얻는 방법이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아이를 많이 낳기보다는 제대로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맞게 남성은 자식교육을 잘할 수 있는 현명한 여성 한 명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문제 해결할 합리적 제도의 구상에 도움

이 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제도를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이른바 출산파업을 가격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처지에서 볼 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 드는 비용의 효과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큰 사회를 만들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고학력 전문직의 여성은 출산을 했을 때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모성애에 호소하고 사회분위기를 출산장려 쪽으로 몬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지은이는 “자발적인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자유로운 교환이 자원을 가장 이롭게 분배”한다거나,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즉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복지를 어떤 식으로 향상시킬지에 대해 일관성 있는 선호와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은 옳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시카고학파의 전제를 수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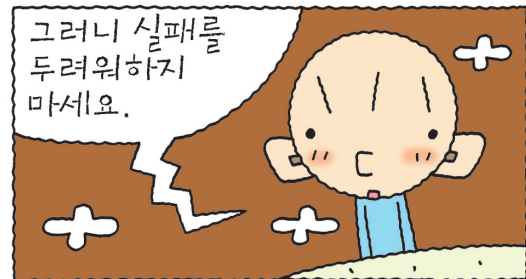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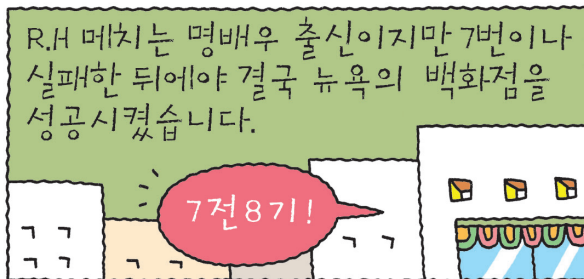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으나, 그렇지만 앓다는 것은 최근의 경제 위기가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래서일까, ‘공짜의 가격’이나, ‘미래의 가격’에서는 기회비용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것들의 사례를 보여준다. 에필로그에서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위기도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무엇이든 극단은 위험하다. “자기통제의 시대는 끝났고, 자유방임주의도 끝났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옳다고 생각됐던 전능한 시장의 시대도 끝났다”라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말을 곱씹어 보아야 한다. **G**

글·이권우 (도사평론가)

희망은 언제나 반짝반짝!

글과 그림 · 최영순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아 없어지는 무수한 기회들이다.

— 美 유니티드 테크놀로지사의 기업PR 문안 중에서



공연 제2회 뮤지엄플레이 페스

티별 주식회사 아트브릿지는 국립 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서울시내 4개 공연장에서 <뮤지엄플레이 페스티벌 (MuseumPlay Festival, MPE)>을 연다. 역사체험연극 <박물관은 살아있

다>와 전통문화체험단 <꼭두랑 놀자>를 선보인다. 어린이들이 역사적 인물, 사건, 시대별 문화사, 생활사 등을 공연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한국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뮤지엄플레이 페스티벌은 체험과 놀이, 공연 등으로 다양한 감성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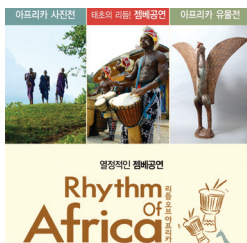
일시 7월 9일~8월 28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특설공연장 및 서울시내 4개 공연장 **입장권** 3만원 **문의** 02-741-3581

축제 보령 머드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 중 하나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보령머드 축제는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도가 높은 축제 중 하나다. 머드를 이용한 머드마사지, 머드분수, 대형 머드탕, 머드 슬라이드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돼 있다. 축제 기간 중 행사장 일대에선 머드 마임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한다. 특설 무대에선 개막공연, 7080 세시봉, 비보이, 힙합 공연이 열린다.



일시 7월 16~24일 **장소**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및 시내 일원 **문의** 041-930-3820/3822



전시 MBC 아프리카의 눈물전

화제의 다큐멘터리 <아프리카의 눈물>을 주제로 한 전시회 'MBC 아프리카의 눈물 특별전'리듬 오브 아프리카가 열린다. 기존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체험과 공연까지 결합해 관람자를 아프리카로 초대한다. 사진, 조각 및 유물, 공연으로 채워진 정규 전시관과 사진작가 김중만의 사진특별관 및 토이 사파리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토이 사파리 체험관에서는 실제 크기의 동물 모형이 전시된다. 직접 만지거나 사진 촬영이 가능해 실제 아프리카 대륙을 여행한 듯 생생한 체험이 가능하다.

일시 8월 18일까지 **장소**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 **문의** 1544-0811



<클라우드>는 기존 재난 영화와 달리 재난 후 이야기에 무게를 두었다.

방사선 피폭 두 남녀 사랑이 절망을 보듬다

영화 <클라우드>

영화 <클라우드(The Cloud)>는 독일 문학계의 거장 구드룬 파우제방이 1986년 '20세기 최대의 재앙'인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을 소재로 쓴 밀리언 베스트셀러 소설 <구름>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원전 폭발이라는 재난이 모티브지만, 재난보다는 원전 사고 후 그로 인한 후유증과 그것이 남긴 상처 그리고 이를 보듬어가는 인물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영화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의 한적한 시골 마을의 여고생 한나(파올라 카렌베르크)와 전학 온 남학생 엘마(프란츠 단다)의 풋풋한 사랑 얘기에서부터 시작한다. 한나와 엘마가 가까워지고 첫 키스를 나누는 순간, 인근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를 알리는 사이렌 경보가 울린다. 그리고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이어진다.

한나는 파난 도중 인파에 떠밀려 엘마와 헤어지고 만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 섞인 비를 맞게 된다. 방사선 피폭 후유증으로 절망에 빠진 한나에게 엘마가 찾아오지만 엘마 역시 피폭 후유증을 보인다. 영화는 사고 후 절망 속에서 희망의 끈을 부여잡은 두 남녀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한다. **G**

개봉일 7월 14일 **관람등급** 15세 이상

박학기·박승화·강인봉·이동은 돌아온 포크 '4인4색' 〈포커스 콘서트〉

○ 박학기, 박승화, 강인봉, 이동은 등 포크 가수 4인이 결성한 프로젝트 밴드 '포커스(4CUS)'가 7월 7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종로구 동숭동 예스24 아트홀에서 〈포커스 콘서트〉를 연다. 소극장 무대에서 포크가수 4인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으며 아날로그적 감성에 젖어 볼 수 있는 공연이다.

프로젝트 밴드 '포커스'의 멤버 4인은 지난 2009년 각자의 가수 활동과는 별개로 포크 취미밴드 '대박나라'를 결성했다 지난해 '포커스'로 이름을 바꾸고 9곡을 수록한 음반 〈한번 더〉를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다.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잠깐씩 선 적은 있지만 장기공연으로 콘서트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학기는 '비타민' '향기로운 추억' '아름다운 세상' 등을, 박승화는 유리상자의 멤버로 '사랑해도 될까요' '순애보' '신부에게' 등을 히트시켰다. '자전거탄 풍경'과 '나무자전거'의 멤버 강인봉은 '너에게 난 나에게 난' '사랑한다면'으로, '푸른하늘' '라이어밴드' 출신의 이동은은 '더 사랑한다'로 잘 알려져 있다.

연출을 맡은 트라이포스의 노현창씨는 "콘서트를 통해 관객들은 가요뿐 아니라 팝,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포크송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지난 4월 OBS '스토리 콘서트 해후' 녹화 리허설 중 1.5미터 무대에서 떨어져 고관절·광대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던 강인봉이 사고 뒤 처음으로 오르는 무대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연에는 강인봉의 단짝 '나무자전거'의 김형섭이 고정 게스트로 함께 무대에 오른다. **G** 글·박근희 기자

일시 7월 7~24일 장소 종로구 동숭동 예스24 아트홀 관람료 5만원 문의 1588-4446



'포커스'의 멤버 4인의 장기공연으로 콘서트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연소식

공연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그리스	올림픽 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	8월 28일까지	1588-5212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잠실 롯데월드 예술극장	7월 31일까지	02-2266-3727
신의 아그네스	부산AN아트홀.Red	7월 31일까지	1566-5490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부산 SM아트홀 2관	7월 17일까지	1600-1602
연극			
강풀의 순정만화	송죽씨어터	7월 31일까지	053-252-9771
너와 함께라면	코엑스 아트홀	7월 31일까지	02-766-6007
목각인형 콘서트	가든파이버 아트홀	7월 15일까지	02-501-7888
보잉보잉	좋은데이 숭사당아트홀 해운대관	7월 24일까지	051-740-4888
콘서트			
2011 DJ DOC POOLSIDE PARTY	쉐라톤 워커힐 호텔 리버파크 야외수영장	7월 16~17일	02-542-4145
2011 변진섭 전국투어 콘서트 The Ballad	창원 MBC홀	7월 24일	1566-5490
노리플라이 콘서트 'Golden Age'	올림픽홀	7월 16일	1544-6399
클래식			
제9회 코리아니쉬 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월 18일	02-586-0945
CINE CLASSIC FESTIVAL 'MAESTRO 6'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소극장	7월 20일까지	031-230-3440~2
2011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PO)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7월 30일	032-420-2027~8
오페라 / 무용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논개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7월 12~15일	063-288-6807
2011 커립콘서트4 -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7월 20일	032-420-2027~8

7월 첫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6월 19일~6월 25일

곡명	가수
1 Hands Up	2PM
2 Hot Summer	f(x)
3 바보 (박효신)	박정현
4 내가 제일 잘 나가	2NE1
5 별빛달빛	시크릿
6 끝사랑	김범수
7 살다가 한번쯤	포맨
8 얼음꽃 (Feat. 김세황)	아이유, 김연아
9 빼애로는 우릴 보고 웃지 (김완선)	BMK
10 나를 잊지 말아요	허각

당신도 혹시 거짓말 증후군?

3개 공중파 방송에서 월요일과 화요일 밤 10시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거짓말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다. <동안미녀>(KBS2), <미스 리플러>(MBC), <내게 거짓말을 해봐>(SBS, 6월 28일 종영)의 여자주인공들은 거짓말로 접근하여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거나 결혼에 골인한다.

실제 뉴스를 보면 남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드라마에서는 여자가 거짓말쟁이 역할을 맡는지 모를 일이다. 드라마 속 남자가 여자의 거짓말을 안 뒤에도 사랑스러워 미치겠다는 표정을 짓는 것 역시 이해가 안 간다.

인터넷망으로 촘촘히 연결된 우리 사회는 숨길 게 없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잘만 이용하면 자신을 교묘하게 포장할 수 있다. 진심을 확인할 수 없는 채팅을 통해 환심을 사거나, 블로그를 개설하여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면 되는 것이다. 조금 용기를 내서 거짓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천연덕스럽게 활동하다 보면 거짓말이 기정사실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실제로 당사자가 리플러 증후군에 빠져 자신이 만든 거짓말 맵에 맞춰 사는 경우도 있다.

거짓말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를 약속이나 한 듯 공중파 3사에서 방영하고 있다. 세 드라마는 거짓말을 '소통의 도구로 삼고 있다. 하지만 거짓말이 성과를 낸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자라나는 세대가 자칫 '거짓말도 소통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후유증을 어떻게 것인가.

왜 거짓말이 드라마와 현실에서 판치는 걸까. 세 드라마는 아이러니하게도 거짓말을 '소통'의 도구로 삼고 있다. 거짓말을 안 했다면 그 자리에 못 갔고, 그 사람을 못 만났고, 자아실현을 못 했다는 게 그녀들이 던지는 메시지다. '스펙으로 돌돌 감지 않았으면 나를 거들떠보거나 했겠나'라고 당당히 항변하는 것이다.

실제로 거짓말 이력으로 활동한 많은 사람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소용돌이 속에서도 꺾이지 버텨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들을 보면 스펙 없이는 아예 접근조차 하기 힘든 벽이 사회 곳곳에 진치고 있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많은 것을 빠른시간에 얻으면 그만큼 후유증 생겨

하지만 거짓말이 소통의 도구로 이용되는 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거짓말로 접근하여 능력을 발휘하다 진실을 밝히고(혹은 밝혀지거나) 인정받는다'는 공식은 위험한 사고를 낳고 사회 질서를 깨는 일이다. 그럼에도 드라마에서나 현실에서나 이 공식은 유리한 답을 내고 있는 듯하다.

옆도 뒤도 돌아보기 힘들만큼 분주한 세상에서 여전히 '소통'이라는 가면을 쓴 거짓말이 판을 친다. 그 거짓말이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자리를 지켜준다 하더라도,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자라나는 세대가 자칫 '거짓말도 소통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후유증을 어떻게 것인가.

막히면 천천히 가거나 돌아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통을 밟고, 자격이 미달되면 낮은 데서 출발하여 한발 한발 올라가는 게 정석이다. 많은 것을 빠른 시간에 얻으면 그만큼 후유증도 생기기 마련이다. 하늘을 우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던 시인처럼 살긴 힘들지만, 그런 마음 자세로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사통팔달로 바람이 통하는 시원한 사회가 될 것이다. **G** 글·이근미(소설가)





가슴으로 전하는 희망의 목소리



129

도움이 필요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

민생안정 지원에 관한 상담

생활이 어렵고 생계가 막막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지원, 자영업자생업지원, 실직자지원,
저소득층생계지원, 교육·주거지원 등

소득보장에 관한 상담

소득이 적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자활사업,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상담

장애가 있고, 생활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보육정책, 사회서비스, 인구정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제도 등

건강생활에 관한 상담

몸이 많이 아프고 병원비가 없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보건의료, 건강보험, 한의약정책, 건강정책, 질병정책, 노인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긴급지원에 관한 상담

이웃에 학대받는 아동, 노인이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지원(야간/휴일), 아동학대, 노인학대, 정신건강, 자살,
알코올, 응급의료 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Government Call Cente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정부대표민원전화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민원상담은 110으로!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 업무를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08:00~21:00 / 토요일 09:00~13:00

예약상담 www.110.go.kr m.110.go.kr 휴대전화 문자상담 110

외국어상담 영어, 일어, 베트남어 등 20여 개 언어로 상담 가능



홍보대사
이선영 KBS 아나운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